

# 1930년대 소련 군부 숙청의 원인

— 적군(赤軍) 기병 지휘관의 이력 분석을 중심으로 —

이 정 하\*

- I. 글을 시작하며
- II. 적군 기병 지휘관은 숙청으로부터 안전하였는가?
- III. 제1기병군 출신 지휘관은 숙청으로부터 안전하였는가?
- IV. '중심 작전(*glubokaia operatsiia*)' 교리와 군부 숙청
- V. 글을 맺으며

## I. 글을 시작하며

'트로츠키파 반(反)소비에트 군부조직 사건(*Delo trotskistskoi antisovetskoi voennoi organizatsii*)' 혹은 '투하첵스키 사건(*Delo tukhachevskogo*)'으로 불리는 1930년대 말 소련 군부 숙청은 미하일 투하첵스키(Mikhail Nikolaevich Tukhachevskii, 1893-1937) 원수를 포함한 적군(赤軍)<sup>1)</sup> 고위 지휘관들, 즉 키예프 군관구장 요나 야키르(Iona Emmanuilovich Iakir,

---

\* 서울대학교 한국서양사연구회 연구원.

1) '적군(赤軍)'은 1918년부터 사용된 노농적군(勞農赤軍: *Raboche-krest'ianskaia Krasnaia armia*)의 약칭이다. 1946년 이후 소련은 적군이라는 용어 대신 소련군(蘇聯軍: *Sovetskaia armia*)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1896-1937), 벨라루스 군관구장 예로임 우보레비치(Ieroim Petrovich Uborevich, 1896-1937), 레닌그라드 군관구 부군관구장 비탈리 프리마코프(Vitali Markovich Primakov, 1897-1937) 등을 반혁명 음모로 처형한 사건을 말한다.

군부 숙청은 소련사에서 여전히 연구하기 까다로운 주제 중 하나이다. 많은 연구가 다양한 측면에서 수행되었지만, 그 원인과 성격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다.<sup>2)</sup> 군부 숙청의 원인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스탈린의 권력에 대한 집착과 이에 대한 몇몇 군부 지휘관들의 공조) 혹은

---

2) 군부 숙청의 원인에 대해서는 1990년대 초반 러시아의 문서고 개방 이후에도 여전히 논쟁 중이다. 1990년대 소위 ‘문서고 혁명(archival revolution)’이 군부 숙청 연구에 미친 영향에 관해서는 다음을 보라. Roger R. Reese, *Stalin's Reluctant Soldiers: A Social History of the Red Army 1925-1941*, 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96, pp.132-135. 리즈의 저작 이후, 군부 숙청에 관한 몇몇 의미 있는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대표적으로 다음을 보라. Oleg Fedotovitch Suvenirov, *Tragediia RKKa, 1937-1938*, Moscow: Terra, 1998; Nikolai Semenovitch Cherushev, *1937 god: Elita Krasnoi Armii na Golgofe*, Moscow: Veche, 2000. 피숙청 인원의 정확한 수치도 현재 논쟁 중이며, 연구자마다 다양한 추정치만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볼코고노프는 숙청 막바지였던 1938년 말까지 약 4만 명이 숙청된 것으로 주장하지만, 이 수치는 음주나 절도 등의 ‘비정치적’ 이유로 군대에서 강제 예편된 인원까지 포함하고 있는 수치이다. D. A. Volkogonov, *Triumf i tragediia: Politicheskii portret I.V. Stalina*, 2nd ed. Moscow: Novosti, 1990, vol.1, p.513. 또 다른 추산에 따르면, 1937-1938년 동안 육군에서 3만 5,000명 이상, 해군에서 약 3,000명, 공군에서 5,000명 이상의 인원이 숙청되었다고 한다. V. V. Karpov, *Marshal Zhukov: Ego soratniki i protivniki v dni voiny i mira*, Moscow: Voennizdat, 1992, p.174. 숙청 당시 적군 정보부에서 근무했던 크리비츠키는 숙청 인원을 3만 5,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W. G. Krivitsky, *In Stalin's Secret Service*,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39, p.232. 확실한 것은 5명의 원수 중 3명, 15명의 군(armia: 중장 혹은 대장급에 해당) 지휘관 중 13명, 57명의 군단 지휘관 중 50명, 186명의 사단 지휘관 중 154명이 숙청되었다는 것이다. Stephane Courtois, *The Black Book of Communism: Crimes, Terror, Repress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p.198. 이전의 연구들에서는 적군 장교단의 약 25-50%가 숙청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연구는 약 3.7-7.7% 정도로 숙청의 규모를 추산하고 있다. 또한 피숙청 인원 중 약 30%가 이후 또 다른 재판을 통해 적군으로 복귀하기도 하였다.

독일군 정보부가 투하첵스키를 중심으로 한 ‘혁신적이고 유능한 지휘관들’을 제거하기 위해 반혁명 음모계획이 담긴 조작된 문건을 스탈린에게 전달하였다<sup>4)</sup> 등의 주장이 있다.

1980년대와 소련 붕괴 직전이었던 1990년대 초반에 등장하였던 몇몇 연구들은 숙청문제에 다양한 시각을 더하였다. 이들 연구는 숙청 당시 지휘관들에 대한 체포 및 재판 과정에서 스탈린을 비롯한 ‘숙청을 주도’하였다고 알려졌던 인물들의 행동이나 명령이 일관성이 없고 불명확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군부 숙청이 미리 계획된 것이라기보다는 우발적인

- 
- 3) 대표적으로 다음을 보라. E. Wollenberg, *The Red Army*, London: Secker & Warburg, 1938; J. A. Armstrong, *The Politics of Totalitarianism: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from 1934 to the Present*, New York: Random House, 1961; John Erickson, *The Soviet High Command: A Military-Political History 1918-1941*, New York: St. Martin's, 1962; P. W. Blackstock, "The Tukhachevsky Affair," *Russian Review*, no.28, 1969, pp.171-190; Robert Conquest, *The Great Terror: Stalin's Purge of the Thirties*, London: Macmillan, 1968; V. Rapoport and Y. Alexeev, *High Treason: Essays on the History of the Red Army 1918-1938*,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85; V. S. Antonov and E. G. Plimak, "Taina zagovora Tukhachevskogo," *Otechestvennaia istoriia*, no.4, 1998, pp.123-138; Dmitrii Volkogonov, *Stalin: Triumph and Tragedy*, London: Grove Weidenfeld, 1991; R. C. Tucker, *Stalin in Power: The Revolution from Above 1928-1941*, New York: Norton, 1992; Lev Nikulin, *Marshal Tukhachevskii*, Moscow: Voenizdat, 1964; Iu. Petrov, *Partiinoe stroitel'stvo v sovetskoii armii i flote 1918-1961*, Moscow: Voenizdat, 1964.
- 4) 독일정보부의 문건조작설에 관해서는 다음을 보라. Conquest, *The Great Terror*, pp.296-302; Erickson, *The Soviet High Command*, pp.456-457; Blackstock, "The Tukhachevsky Affair," pp.171-190; R. Thurston, *Life and Terror in Stalin's Russi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6, p.56; E. Benes, *Memoirs of Dr. Eduard Benes: From Munich to New War and New Victory*, London: Arno Press, 1954, p.20; I. Lukes, "The Tukhachevsky Affair and President Edvard Benes," *Diplomacy and Statecraft*, no.7, 1996, pp.505-529. 문건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문건이 만들어졌다고 주장된 시점 이전에 이미 투하첵스키와 처형된 8명의 지휘관 중 두 명은 수감 중이었고, 더욱이 문건이 스탈린에게 전달되었다고 전해지는 시점에 숙청은 이미 진행 중이었다.

정치적 사건이라고 이전 연구들을 반박하였다.<sup>5)</sup> 이러한 연구들이 군부 숙청을 단순히 ‘투하첵스키 사건’으로만 파악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시각과 다양한 관점을 담고 있음에도, 적군 군부 숙청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소수 유명 인물들의 회고록이나 그 실체가 의심스러운 많은 에피소드에 기반하고 있다. 즉 사료의 특성과 한계는 자연히 ‘극소수 군부 고위지휘관’과 ‘극소수 정치계 인물’ 간의 관계로만 군부 숙청을 이해하도록 만들었다. 여전히 군부 숙청의 원인과 피숙청 지휘관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료의 부족이 가장 주된 요인이겠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많은 연구자가 숙청을 스탈린을 중심으로 한 정치계 인물들과 고위지휘관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분석하는 ‘관성’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군부 숙청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5) 대표적으로 다음을 보라. J. A. Getty, *Origins of the Great Purges: The Soviet Communist Party Reconsidered 1933-193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pp.167-168; G. Rittersporn, *Stalinist Simplifications and Soviet Complications: Social Tensions and Political Conflicts in the USSR 1933-1953*, New York: Harwood Academic Pub., 1991, p.140; Roger R. Reese, “The Red Army and the Great Purges,” *Stalinist Terror: New Perspectiv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Roger R. Reese, *Stalin’s Reluctant Soldiers: A Social History of the Red Army 1924-1941*, 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96; Roger R. Reese, *Red Commanders: A Social History of the Soviet Army Officer Corps 1918-1991*, 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5. 주로 고위지휘관에 집중했던 기존의 연구와 달리, 리즈의 연구는 숙청의 ‘공포’ 속에서 ‘계급의 적이 되지 않기 위해’ 반응하는 하급 지휘관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O. Suvenirov, “Repressii v partiorganizatsii RKKa v 1937-1938,” *Voprosy istorii KPSS*, no.6, 1991, pp.17-31; O. Suvenirov, *Tragediia RKKa 1937-1938*, Moscow: Terra, 1998. 다음도 보라. Sergei Minakov, *Stalin i zagovor generalov*, Moscow: Eksmo, 2005. 미나코프는 내전 이후 당군 관계를 지휘관들의 보나파티즘에 대한 당의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한다. 군부 숙청의 시점과 당시 국제관계의 영향에 관해서는, James Harris, “Encircled by Enemies: Stalin’s Perceptions of the Capitalist World 1918-1941,”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no.30, 2007, pp.513-545.

첫째, 러시아 내전 당시 남부 전선 제10군 예하 제1기병군(*Pervaia konnaia armiia*) 혁명군사위원이었던 스탈린과 보로실로프가 이 부대 지휘관 부돈니(S. M. Budennyi)를 중심으로 한 기병 지휘관과 개인적 교분을 맺었다. 전후 권력투쟁 시기 스탈린은 이들 기병 지휘관을 군부 내 지지기반으로 삼았다. 권력투쟁에서 승리한 이후, 스탈린은 이들을 군부 요직에 기용함으로써 군부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다.

둘째, 군부 엘리트였던 기병 지휘관이 자신들의 영향력 유지와 조직기반인 적군 기병을 보호할 목적으로, 기갑 교리를 주장하던 투하첵스키 등을 반혁명분자로 몰아 제거한 것이 군부 숙청이다.

셋째, 기병 지휘관의 군사혁신에 대한 반대와 무지, 그리고 개인 권력을 강화하고자 했던 스탈린으로 인해 소련의 군사혁신은 좌절되었고, 결국 이는 독소전 초반의 군사적 재앙을 가져왔다.<sup>6)</sup>

---

6) 적군 기병에 관한 이런 주장들은, 1944년 독소전이 한창이던 시기에 출간된 페도토프-화이트의 저작이나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는 존 에릭슨의 연구뿐만 아니라, 심지어 소련 붕괴 이후 출간된 거의 모든 적군 관련 연구의 주된 경향이다. 대표적으로 다음을 보라. D. Fedotoff-White, *The Growth of the Red Arm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44; Erickson, *Soviet High Command*; Richard Harrison, *The Russian Way of War: Operational Art, 1904-1940*, 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1; Mary Habeck, *Storm of Steel: The Development of Armor Doctrine in Germany and the Soviet Union, 1919-1939*,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3; David M. Glantz, *Stumbling Colossus: The Red Army on the Eve of World War*, 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98; R. Savushkin, *Razvitie sovetskikh vooruzhennykh sil i voennogo iskusstva v mezhoennyi period (1921-iun' 1941 gg.)*, Moscow: VPA imini V. I. Lenina, 1989; Andrei A. Kokoshin, *Armiia i politika: Sovetskaia voenno-politicheskaia i voenno-strategicheskaia mys' 1918-1991 gody*, Moscow: Mezhdunarodnye otnosheniia, 1995; N. Iu. Kuleshova, "Voенно-doktrinal'nye ustanovskii Stalinskogo rukovodstva i repressii v Krasnoi Armii kontsa 1930-kh godov." *Otechestvennaia istoriia*, no.2, 2001. 일반 독자에게 더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다음과 같은 대중 서적을 통해서도 이러한 주장은 재생산되었다. V. Rapoport and Yu. Alexeev, *High Treason*; V. Suvorov, *Ochishchenie: Zachem Stalin obezglavil svoju armiiu?* Moscow: AST, 1998.

이러한 주장들이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단순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문제의 중심인 기병 지휘관들의 피소청 여부와 소청 사유를 체계적으로 분석해보는 것이다. 즉 당시 기병 지휘관은 누구였는지, 과연 소청으로부터 안전하였는지, 그리고 소청을 당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확인해보는 것이다. ‘극소수 정치 지도자들’과 ‘극소수 지휘관들’ 간의 관계로 군부 소청을 설명하던 기존의 틀을 버리고, 본고는 군부 소청 직전인 1936년 적군 기병에서 복무하고 있던 199명의 연대장(급) 이상 지휘관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인적정보 및 경력 정보를 기반으로 군부 소청을 분석하고자 한다.<sup>7)</sup> 다음 문제들의 답을 구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첫째, 적군 기병 지휘관은 과연 기존의 연구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소청의 수혜자였던가? 그들은 소청으로부터 안전하였는가?

둘째, 적군 기병 지휘관 전체가 소청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스탈린과 보로실로프 등의 정치계 인물들과 함께 러시아 내전에서 개인적 교분을 맺고 전후 군부 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지휘관은 소청

---

7) 현재까지 적군 기병이나 지휘관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러시아 내전부터 1936년까지 창설되고 개편되었던 기병 부대의 목록이나 지휘관들의 명단을 추적하고 정리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1984년에 발간된 소련 정기간행물에 ‘소비에트 영웅(*Geroi Sovetskogo Soiuz*)’ 칭호를 받은 261명의 기병대원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지만, 성명을 제외하고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시되지 않았다. 명단에는 플리에프(*Issa Aleksandrovich Pliev*, 1903-1979)와 같은 지휘관도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사병들이었다. 다음을 보라. A. Ia. Soshnikov eds., *Sovetskaia kavaleriia: Voennno-istoricheskii ocherk*, Moscow: Voenizdat, 1984, pp.314-318. 이에 반해 기갑 병과와 지휘관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자료들이 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다음을 보라. A. O. Belykh eds., *Glavnoe avtobronetankovoe upravlenie: Liudi, sobytia, fakty v dokumentakh*, 5 vol., Moscow: Ministerstvo oborony RF, 2004-2009; S. A. Maev, *Ogon', bronia, manevr*, 2 vols, Moscow: Glavnoe avtobronetankovoe upravlenie MO RF, 1999-2001.

으로부터 안전하였는가? 더 정확히는 내전 당시 스탈린과 보로실로프와 함께 제1기병군에서 복무했던 지휘관은 어떠한가? 스탈린과 보로실로프를 중심으로 한 기병 지휘관들이 숙청을 계획하고 수행했다면, 제1기병군 출신 지휘관은 숙청으로부터 안전했는가?

셋째, 숙청의 원인은 무엇인가? 기존의 주장과 같이 스탈린의 권력욕이 주된 원인인가? 새로운 군사기술과 군사교리로 인해 군부 내 주도권 상실을 두려워했던 기병 지휘관이 숙청의 주요 행위자인가? 과연 군부 숙청은 투하첵스키 등이 구상하고 있던 기갑 교리의 발전을 저해했는가?

본고가 이용한 데이터 즉 분석대상인 기병 지휘관들의 범위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이 필요하다.<sup>8)</sup> 필자가 문서고 사료, 간행 사료집, 회고록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에 기반하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러시아 내전부터 군부 숙청 발발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기병연대 이상의 부대를 지휘한 인물은 총 301명이다. 하지만 본고는 숙청 직전인 1936년 당시 적군 기병으로 복무하고 있던 지휘관 중 연대장(급) 이상의 보직을 맡고 있었던 199명의 지휘관만을 분석대상으로 한다.<sup>9)</sup> 그리고 199명의 지휘관

8)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어려움은 다음 세 가지 정도였다. 첫째, 러시아 내전과 같은 혼란한 상황에서 창설되고 개편되었던 기병 부대와 그 지휘관들을 추적하는 것, 둘째, 영미권 자료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도 발행된 자료들 대부분이 소수의 유명 지휘관의 정보만을 담고 있다는 점, 셋째, 군사문헌과 지휘관들에 관한 자료들이 주로 러시아 내전과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영광스러운 과거'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적군 관련 연구의 일반적 경향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9) 연대장 이하의 지휘관들을 대상에서 제외한 주된 이유는 이들 지휘관 전체를 모두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추적한 지휘관의 경우에도 인적정보 및 경력 정보가 매우 파편적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적기 훈장(*Orden Krasnogo Znameni*)' 수훈자 목록에서는 연대장(급) 이하 지휘관들의 성명 외에 수훈 당시의 소속 부대 등과 같은 기초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매우 드문 사례이다. 러시아 내전 시기 적기 훈장 수훈자 목록은 다음을 보라. *Sbornik liis, nagrazhdennykh ordenom Krasnogo znamenii i pochetyim revoliutsionnym oruziem*, Moscow: Voenizdat, 1926.

은 일선 부대 지휘관만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군사 인민위원(*voennyi kommissar: voenkom*)<sup>10)</sup>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sup>11)</sup> 대신 1920-1930년대 적군 기병 편제에 속해 있던 기계화 부대 지휘관들은 분석에 포함하였다.

10) 1918년 12월에서 1920년 7월까지, 적군은 2만여 명의 공산당원을 군사 인민위원 자격으로 각 전선군과 군단에 배속시켰다. 러시아 국립군사문서고(*Rossiiskii Gosudarstvenni Voennyi Arkhiv*, 이하 RGVA), f. 9, op. 26, d. 160, l. 42. 예를 들어, 1920년에만 800명이 넘는 군사 인민위원이 제1기병군에 파견되었고, 가장 많은 수는 1920년 5월 폴란드와의 전쟁을 앞두고 이루어졌다. RGVA, f. 9, op. 16, d. 2, l. 14. 비록 이들의 정치교육이 군기 유지에는 효과적이었지만, 군사 경험 이 부족했던 이유로 효과적인 군사적 임무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RGVA, f. 245, op. 9, d. 4, l. 135.

11) 1945년 4월 16일~5월 8일까지 수행된 베를린 공방전(Battle of Berlin)에서 G. K. 주코프와 경쟁하였던 이반 코네프(Ivan Stepanovich Konev, 1897-1973)와 쿠르스크 전투(Battle of Kursk)의 영웅이자 제3근위전차군의 지휘관이었던 파벨 리발코(Pavel Semenovich Rybalko, 1892-1948) 모두 러시아 내전에서 군사 인민위원으로 복무했다. 1920년대에 코네프의 경우는 보병으로, 리발코의 경우는 기병으로 보직 변경이 된다. 이런 경우 본고는 러시아 내전에서 두 지휘관 모두 군사 인민위원으로 근무했지만, 숙청 직전의 보직을 감안하여 리발코는 연구 대상에 포함하였다. 코네프에 관해서는 다음을 보라. A. Zotov, "Marshal Sovetskogo soiuza I.S. Konev," *Voенno-istoricheskii zhurnal*, no. 12, 1977, pp.115-119; I. V. Stavitskii, "Geroi, polkovodets, communist (K 90-letiiu so dnia rozhdeniia Marshala Sovetskogo soiuza I.S. Koneva)," *Voprosy istorii KPSS*, no.12, 1987, pp.116-119; K. M. Simonov, "Bessedy s Marshalom Sovetskogo Soiuza I. S. Konevym," *Glazami cheloveka moego pokoleniia: Razmyshleniia o I. V. Staline*, Moscow: Novosti, 1988, pp.394-395; "Avtobiografiia I. S. Koneva." *Voенno-istoricheskii zhurnal*, no. 2, 1991, pp.18-20. 리발코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 G. Vozhakin eds., *Velikaia Otechestvennii. Komandarmy: Voennyi biograficheskii slovar'*, Moscow: Kuchkovo pole, 2005, p.200; A. N. Kiselev, *Polkovodtsy i voenachal'niki Velikoi otechestvennoi: Sbornik*, vol.1, pp.292-330; D. Dragunskii, "Dvazhdy Geroi Sovetskogo Soiuza P.S. Rybalko," *Voенno-istoricheskii zhurnal*, no.11, 1974, pp.125-128; P. Poluboiarov, "Marshal bronetankovykh voisk P. S. Rybalko (K 90-letiiu so dnia rozhdeniia)," *Voенno-istoricheskii zhurnal*, no.11, 1984, pp.84-86; D. M. Shein, *Tanki vedet Rybalko: Boevoi put' 3-ei Gvardeiskoi tankovoi armii*, Moscow: Eksmo, 2007; V. A. Zhilin, *Geroi-tankisty 1943-1945 gg.*, Moscow: Eksmo, 2008, pp.243-276.

## II. 적군 기병 지휘관은 숙청으로부터 안전하였는가?

1936년 말 숙청 직전 적군 기병에서 연대급 이상 부대를 지휘하던 지휘관은 총 199명이었다. ‘1930년대 진급자’<sup>12)</sup>인 파벨 바티츠키(Pavel F. Batitskii, 1910-1984)<sup>13)</sup>를 제외한 모든 지휘관은 러시아 내전 참전 경험이 있었고, 내전 당시의 전공을 기반으로 전후에도 적군에 남아 경력을 이어오고 있었다. 이들의 평균 출생연도는 1895-1896년이며,<sup>14)</sup> 주로 남부

12) 199명의 지휘관은 연대장(급)으로 진급한 시기에 따라 내전 시기에 진급한 ‘러시아 내전 진급자’, 내전 이후 1920년대에 진급한 ‘1920년대 진급자’, 마지막으로 1930년대에 진급(정확히는 1931년에서 숙청 직전인 1936년까지 진급)한 ‘1930년대 진급자’로 구분한다.

13) 파벨 페도로비치 바티츠키(Pavel Fedorovich Batitskii, 1910-1984). 러시아계 노동자 출신. 1910년 하르코프(Kharkov) 출생. 1926년 하르코프 군사예비학교(Khar'kovskaia voenno-podgotovitel'naia shkola) 졸업. 1929년 제40기병연대 예하 소대 지휘관. 1931-1933년 벨라루스 군관구 제7기병사단(당시 G. K. 슈코프가 지휘)예하 독립공병중대 지휘관. 1933-1935년 벨라루스 군관구 제3기병군단(당시 S. K. 티오셴코가 지휘) 제7기병사단 예하 제7공병연대 지휘관. 1938년 프룬제군사학교 졸업. 1938년 발틱 특별군관구 참모장. 1953년 모스크바 군관구장. 1965년 소비에트 연방영웅(Geroi Sovetskogo Soiuz) 수훈. 1968년 소련 원수. 바티츠키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Sovetskaia voennaia entsiklopediia*, vol.1, p.407; I. N. Shkadov, eds., *Geroi Sovetskogo Soiuz: Kratkii biograficheskii slovar'*, vol.1, p.128; A. Aleshin ed., *Marshaly Sovetskogo Soiuz: Lichnye dela rasskazyvaiut*, Moscow: Liubimaia kniga, 1996, pp.13-14; A. A. Berezovskii eds., *Geroi-osvoboditeli Cherkasshchiny*. 2nd ed., Dnepropetrovsk: 'Promin', 1980, p.144; V. M. Borodulina eds., *Navechno v serdtse narodnom*. 3rd ed., Minsk: Belorusskaia sov. Entsiklopediia, 1984, pp.45-46; A. K. Apal'kov eds., *Podvigi vo imia otchizny: Dokumental'nye ocherki o Geroiakh Sovetskogo Soiuz, ruozhentsakh Khar'kova i Khar'kovskoi oblasti*. 2nd ed., Khar'kov: 'Prapor', 1985, pp.57-65; A. M. Sinitsyn, *Geroi ognennykh let: Ocherki o moskvichakh-geroiakh Sovetskogo Soiuz*, Moscow: Moskovskii rabochii, 1975-1985, vol.8, pp.653-660.

14) 이 수치는 198명의 지휘관의 신상정보에 근거한 것이다. 당시 제5기병군단 예하 제16기병사단 지휘관이었던 바실리 고닌(Vasilii Matveevich Gonin, ?-1940)의 출

러시아(36명, 18.5%)와 우크라이나(74, 37.9%) 출신들이 많았다.<sup>15)</sup> 민족(natsionalnost) 구성은 러시아계(128명, 65.0%)와 우크라이나계(28명, 14.2%)의 비중이 높았고,<sup>16)</sup> 주로 농민(97명, 59.9%)과 노동자(24명, 14.8%) 출신이었다. 숙청 직전 평균적인 적군 기병 지휘관은 남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 출생한 러시아계나 우크라이나계 농민계급 출신의 39-40세의 인물이었다. 숙청 직전 적군 기병 지휘관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민족 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 숙청 직전 적군 기병 지휘관의 사회경제적 배경

	인원수	비율(%)
농민	97	59.9
노동자	24	14.8
카자크	6	3.7
귀족	7	4.3
인텔리겐치야	5	3.1
사무직노동자( <i>Sluzhashchie</i> )	13	8.0
소상공인( <i>Meshchanstvo</i> )	2	1.2
수공업자 및 기타	8	4.9
<b>총계</b>	<b>162</b>	<b>100</b>

생연도는 확인할 수 없었다. 고닌에 관해서는 다음을 보라. 러시아 연방국립문서고(*Gosudarstvennyi Arkhiv Rossiiskoi Federazii*, 이하 GARF), f. P7523, op. 60, d. 3446, ll.1-9; O. F. Suvenirov, 1937: *Tragediia Krasnoi armii*, Moscow: Eksmo, 2009, p.336.

- 15) 이 수치는 출생지가 확인된 195명의 지휘관 정보에 근거한 것이다. 다음 4명의 지휘관 즉, 고닌(V. M. Gonin), 바르폴로메이 드미트리엔코(Varfolomei Ivanovich Dmitrienko, 1896-1938), 리하르트 그로스베르그(Rikhard Karlovich Grosberg, 1896-1938), 니콜라이 토체노프(Nikolai Ivanovich Tochenov, 1896-1937)의 출생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 16) 이 수치는 민족이 확인된 196명의 지휘관 정보에 근거한 것이다. 엘리세이 고랴초프(Elisei Ivanovich Goriachev, 1892-1938), 알렉세이 바딘(Aleksei Lavrent'evich Badin, 1887-1935), 블라디미르 바쉬케비치(Vladimir Romanovich Vashkevich, 1900-1970)의 민족 정보는 확인할 수 없었다.

&lt;표 2&gt; 숙청 직전 적군 기병 지휘관의 민족 구성

	인원수	비율(%)
러시아	128	65.0
우크라이나	28	14.2
카자크	6	3.0
유대인	9	4.6
폴란드	2	1.0
벨라루스	9	4.6
기타	15	7.6
<b>총계</b>	<b>197</b>	<b>100</b>

199명의 지휘관은 56명(28.1%)의 ‘러시아 내전 진급자’, 57명(28.6%)의 ‘1920년대 진급자’, 86명(43.2%)의 ‘1930년대 진급자’로 나눌 수 있다. 진급 시기와 숙청 직전 보직과의 관계를 정리한 표는 아래와 같다.

&lt;표 3&gt; 연대장(급) 진급 시기와 숙청 직전 보직과의 관계

연대장(급) 이상 진급 시기	군관구장 및 군단장(급)	사단장(급)	연대장(급)
‘러시아내전 진급자’ (총 56명, 28.1%)	19 [33.9%]	17 [30.4%]	20 [35.7%]
‘1920년대 진급자’ (총 57명, 28.6%)	1 [1.8%]	20 [35.1%]	36 [63.2%]
‘1930년대 진급자’ (총 86명, 43.2%)	0	2 [2.3%]	84 [97.7%]
<b>총계</b>	<b>20</b>	<b>39</b>	<b>140</b>

표에서 보듯이, ‘러시아 내전 진급자’ 56명은 내전에서의 전공으로 이미 고위직을 차지하고 군부 엘리트로 성장해 있었다. 대략 3분의 1이 넘는 지휘관들이 군관구장과 군단장직을 차지하고 있음이 이를 반증한다. 우랄 군관구장 보리스 고르바초프(B. S. Gorbachev, 1892-1937)와 북(北)캅카즈

군관구장 니콜라이 카쉬린(N. D. Kashirin, 1888-1938) 그리고 적군 기병 총감 세몬 부돈의 등 3명의 군관구장(급)을 포함한 19명의 군단장(급), 17명의 사단장(급), 20명의 연대장(급)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에 반해 '1930년대 진급자'는 물론이고 '1920년대 진급자'의 경우에도, 미하일 바토르스키(M. A. Batorskii, 1890-1938)<sup>17)</sup>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단장(급)이나 특히 연대장(급) 정도의 보직에서만 근무하고 있었다.

내전 당시 적군 기병과 기병 지휘관들의 군사적 역할이 매우 컸기 때문에, '러시아 내전 진급자'가 고위직을 차지한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파벨 바티츠키를 제외한 나머지 '1920년대 진급자'와 '1930년대 진급자' 모두 내전 참전 경험이 있었음에도, 내전 시기에 연대장(급)의 지휘관으로 승진했다는 점이 이후 진급에 큰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견 이러한 경향이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민족 등의 요인이 아닐까 생각해볼 수 있으나 이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민족 구성은 대동소이하였다. 다음 표는 지휘관들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민족 구성을 보직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

17) 미하일 알렉산드로비치 바토르스키(Mikhail Aleksandrovich Batorskii, 1890-1938). 러시아계 귀족 출신. 前제국군 대령. 니콜라이 기병학교(1910) 및 니콜라이 군사학교(1914) 졸업. 1918년 적군 입대. 내전 기간 제16보병 군단 참모장. 전후 투하첵스키가 지휘하던 서부전선군(Western Front) 참모장 및 제1기병군단 참모장. 숙청 당시 제4기병군단 지휘관. 1938년 체포 후 처형. 다음을 보라. N. S. Cherushev, eds., *Rasstrel'ianaia elita RKKA: 1937-1941: Biograficheskii slovar'*, Moscow: Kuchkovo pole, 2012, pp.58-59; G. K. Zhukov, *Vospominaniia i razmyshleniia*, vol.1, pp.88-89; Shtab RKKA, *Spisok lits s vysshim obshchim voennym obrazovaniem sostoiashchikh na sluzhbe v Raboche-krest'ianskoi krasnoi armii*, Moscow: Voennaia tipografiia Shtaba RKKA, 1923, p.22.

&lt;표 4&gt; 보직으로 구분한 기병 지휘관들의 사회경제적 배경

	군단장(급) <sup>18)</sup>	사단장(급) <sup>19)</sup>	연대장(급) <sup>20)</sup>
농민	8 (42.1%)	22 (61.1%)	67 (62.6%)
노동자	3 (15.8%)	2 (5.6%)	19 (17.8%)
카자크	2 (10.5%)	2 (5.6%)	2 (1.9%)
귀족	1 (5.3%)	3 (8.3%)	3 (2.8%)
인텔리겐치야	2 (10.5%)	1 (2.8%)	2 (1.9%)
사무직노동자	1 (5.3%)	3 (8.3%)	9 (8.4%)
소상공인	0	0	2 (1.9%)
수공업자 및 기타	2 (10.5%)	3 (8.3%)	3 (2.8%)
<b>총계</b>	<b>19 (100%)</b>	<b>36 (100%)</b>	<b>107 (100%)</b>

&lt;표 5&gt; 보직으로 구분한 기병 지휘관들의 민족 구성

	군단장(급) <sup>21)</sup>	사단장(급) <sup>22)</sup>	연대장(급)
러시아	8 (42.1%)	20 (52.6%)	100 (71.4%)
우크라이나	3 (15.8%)	5 (13.2%)	20 (14.3%)
카자크	2 (10.5%)	2 (5.3%)	2 (1.4%)
유대인	1 (5.3%)	4 (10.5%)	4 (2.9%)
폴란드	1 (5.3%)	0	1 (0.7%)
벨라루스	1 (5.3%)	4 (10.5%)	4 (2.9%)
기타	3 (15.8%)	3 (7.9%)	9 (6.4%)
<b>총계</b>	<b>19 (100%)</b>	<b>38 (100%)</b>	<b>140 (100%)</b>

18) 총 20명의 지휘관 중, 엘리세이 고랴초프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확인할 수 없었다.

19) 총 39명의 사단 지휘관 중, 사회경제적 배경이 확인된 36명의 정보에 기반한 수치이다.

20) 총 140명이 연대 지휘관 중, 사회경제적 배경이 확인된 107명의 정보에 기반한 수치이다.

21) 총 20명의 지휘관 중, 엘리세이 고랴초프의 민족 정보는 확인할 수 없었다.

22) 총 39명의 사단 지휘관 중, 알렉세이 바딘(Aleksei Lavrent'evich Badin, 1887-1935)의 민족 정보는 확인할 수 없었다.

러시아 내전 이후 카자크 출신 지휘관의 감소와 러시아계 지휘관의 증가<sup>23)</sup> 그리고 농민 출신 지휘관의 증가를 반영한 것 외에는, 보직 간 사회 경제적 배경이나 민족 구성에서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이는 연령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군단장(급) 지휘관들의 평균 출생연도가 1890/1891년(숙청 직전 45-46세), 사단장(급) 지휘관은 1893/1894(숙청 직전 42-43세), 그리고 연대장(급) 지휘관은 1896/1897년(숙청 직전 39-40세)이었다.<sup>24)</sup> 정리하면, 러시아 내전 시기에 정치계 인물들과 상대적으로 개인적 교분을 맺을 수 있었던 ‘러시아 내전 진급자’가 내전 이후의 경력 특히 진급에서 월등히 유리했다.

그렇다면 이들 기병 지휘관들은 숙청으로부터 안전하였는가? 숙청 직전 기병으로 복무하고 있던 지휘관들의 피숙청 여부를 살펴보면, 기존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음이 드러난다. 즉 199명의 기병 지휘관 중 61명, 즉 30.7%에 달하는 지휘관들이 숙청으로 희생되었다.<sup>25)</sup> 61명의 피숙청 지휘관을 연대장(급) 이상으로 진급했던 시기에 따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3) 이러한 경향은 러시아 내전부터 수행되었던 볼셰비키의 ‘카자크 박해정책(*raskazachivanie*)’의 영향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Peter Holquist, “Conduct Merciless Mass Terror: Decossackization on the Don, 1919,” *Cahiers du monde russe*, vol.38, 1997, pp.127-162.

24) 다른 분야에서 발생하였던 숙청에서 나타났던 세대 간의 갈등이 군부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군부 숙청의 피해자와 수혜자 모두 같은 세대였다. 이후 이들 중 숙청에서 살아남은 지휘관들이 독소전과 냉전 시기 소련군의 엘리트로 성장하게 될 터였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Sheila Fitzpatrick, “Stalin and the Making of a New Elite, 1928-1939,” *Slavic Review*, no.38, 1979, pp.377-402.

25) 투하첵스키와 함께 처형된 고위지휘관 중 프리마코프 또한 러시아 내전에서 제9기병사단과 제2기병군을 지휘하였던 기병 지휘관이었다.

<표 6> 피숙청 지휘관의 연대장(급) 진급 시기

진급시기	인원수	피숙청 인원수	비율(%)
러시아내전 진급자	56	27	48.2
1920년대 진급자	57	21	36.8
1930년대 진급자	86	13	15.1
<b>총계</b>	<b>199</b>	<b>61</b>	<b>30.7</b>

기병 지휘관 전체의 1/3에 달하는 지휘관들이 숙청에 희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의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숙청이 ‘러시아 내전 진급자’에 집중되어 있음이 눈에 띈다. 즉 거의 61명의 피숙청 지휘관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27명(48.2%)이 ‘러시아 내전 진급자’이다. 기존 연구의 주장과는 달리, 군부 내 조직상 안전을 위해 군부 숙청을 주도했다는 기병 지휘관들의 상당수가 실제로는 숙청의 희생자였으며, 더 나아가 러시아 내전에서의 군사적 공훈과 정치계 인물들과의 개인적 교분을 통해 군부 엘리트로 성장하였던 ‘러시아 내전 진급자’가 숙청으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 III. 제1기병군 출신 지휘관은 숙청으로부터 안전하였는가?

제1기병군 출신 지휘관이란, 러시아 내전 중 백군의 공격에 쫓겨 남부 전선의 차리친(Tsaritsyn)으로 철수하여 방어전에 참가했던 지휘관 중 제1기병군, 즉 제4기병사단, 제6기병사단과 제1기병사단에서 복무했던 인물이다.<sup>26)</sup> 내전 이후 스탈린그라드(Stalingrad)로 불렸던 차리친은, 우크라이

26) 제1기병군의 최초 기반은 부돈뇌가 남부 러시아의 스타브로폴(Stavropol') 지역에서 규합했던 소규모 파르티잔 부대였다. 이 파르티잔 부대는 주변의 다른 파르티잔 부대들을 병합하면서, 부돈뇌를 지휘관으로 하는 제1기병사단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전투를 거치면서 오카 고로도비코프(Oka I. Gorodovikov, 1879-1960)의 제4

나와 남부 러시아에서 백군에 패주하였던 여러 적군 부대의 주요 피난처였다. 1918년 6월 보로실로프와 예핌 샤덴코(Efim A. Shchadenko, 1885-1951)가 지휘하던 제3군과 제5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차리친으로 패주하여 백군으로부터 도시를 방어하고 있었고,<sup>27)</sup> 스탈린은 모스크바로부터 군량 획득을 위해 남부 러시아에 파견되었으나, 그 역시 백군의 군사적 압박으로 인해 차리친에 머물고 있었다. 스탈린과 보로실로프 그리고 제1기병군 지휘관 간의 인적 관계도 바로 차리친에서 시작되었다.

1930년대 초반 적군 기병으로 복무하고 있던 제1기병군 출신 지휘관들은 총 74명이었다. 이중 제8기병사단 지휘관이던 아브구스트 트레이만(Avgust Iakovlevich Treiman, 1894-1934)<sup>28)</sup>이 1934년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여, 숙청 직전인 1936년에는 총 73명의 지휘관이 적군 기병으로 복무하고 있었다.<sup>29)</sup> 이들의 평균 출생연도는 1894/1895년(즉 숙청 직전 평균 40-41세)이었으며, 주로 남부 러시아(47.1%)에서 출생한 농민 출신(64.1%)

---

기병사단과 세몬 티모셴코(Semen K. Timoshenko, 1895-1970)의 제6기병사단을 병합하여 ‘부돈늬 기병군단(Konnyi korpus Budennogo)’으로 확대·재편하였다. 이 기병 군단은 1919년 6월 26일에 제1기병군으로 재편된다. RGVA, f. 39408, op. 1, d. 1, l. 25. 제1기병군 혁명군사위원회는 스탈린, 보로실로프, 샤덴코로 구성되었다. RGVA, f. 191, op. 5, d. 125, l. 29; f. 100, op. 3, d. 1130, l. 453; f. 4, op. 18, d. 2, l. 194.

27) Leonid Kliuev, *Bor'ba za Tsaritsyn 1918-1919 gg. S 7 shemani na otdel'nykh listakh*, Moscow: Gosizdat, 1928, p.31.

28) 아브구스트 야코블레비치 트레이만(Avgust Iakovlevich Treiman, 1894-1934). 라트비아계 노동자 출신. 라트비아 리가 출생. 제국군에서 사병 복무. 1918년 적군 입대. 1926년 적군 기병총국(당시 S. M. 부돈늬가 책임) 근무. 1934년 자동차 사고로 사망. 트레이만 또한 사후 또 다른 제1기병군 출신 지휘관이자 내전 당시 제4기병사단 부사단장이었던 이반 코스고프(Ivan Dmitrievich Kosogov, 1891-1938)와 함께 독일 간첩 혐의로 기소되었다. 트레이만과 코스고프 간의 관계와 기소 혐의에 관해서는 다음을 보라. V. N. Khaustov eds., *Lubianka: Stalin i Glavnoe upravlenie gosbezopasnosti NKVD, 1937-1938*, Moscow: Demokratiia, 2004, pp.458-459.

29) Zhukov, *Vospominaniia*, vol.1, p.107.

이었다. 민족 구성은 압도적으로 러시아계(62.5%)가 많았다. 이들은 다시 연대장(급) 승진 시기에 따라, ‘러시아 내전 진급자(35명, 47.9%)’, ‘1920년대 진급자(13명, 17.8%)’ 그리고 ‘1930년대 진급자(19명, 26.0%)’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제1기병군 출신 지휘관은 숙청으로부터 안전하였으며, 숙청의 수혜자였는가? 기존의 주장들이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일종의 ‘신화’였음은 이들의 숙청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스탈린에 의해 요직에 기용되었던 기병 지휘관이 새로운 군사기술과 군사교리 도입으로 인해 자신들의 군부 내 영향력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서 투하첵스키 등의 인물을 제거하였다는 기존 연구의 주장과는 달리, 73명의 제1기병군 출신 지휘관 중 20.5%에 달하는 15명이 ‘스탈린과 보로실로프가 계획하고 주도하였다’라고 알려졌던 군부 숙청에서 희생되었다. 적군 기병 지휘관 중 피숙청 인원이 총 61명임을 감안하면, 15명은 총 피숙청 지휘관의 24.6%에 달하는 수치이다. 피숙청 지휘관 15명을 연대장(급) 진급 시기로 구분한 표는 아래와 같다.

<표 7> 제1기병군 출신 지휘관 중 피숙청 인원의 연대장(급) 진급 시기

진급 시기	인원수	피숙청 인원수	피숙청 비율
‘러시아내전 진급자’	35	13	37.1%
‘1920년대 진급자’	13	0	0
‘1930년대 진급자’	25	2	8.0%
<b>총계</b>	<b>73</b>	<b>15</b>	<b>20.5%</b>

전체 기병 지휘관의 피숙청 비율에서도 나타나는 것과 같이, 제1기병군 출신 지휘관의 경우에서도 ‘러시아 내전 진급자’에 숙청이 집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5명의 ‘러시아 내전 진급자’ 중 37.1%에 달하는 13명이 군부 숙청으로 희생되었다. 제1기병군 출신 지휘관 중 피숙청 인원이 15명임을 감안하면, 13명이라는 수치는 스탈린과 보로실로프와 ‘개인적 교

분'을 가지고 있던 '러시아 내전 진급자'에게서만 숙청이 있었다고 보이도 무방할 정도이다. 피숙청 지휘관 15명의 숙청 당시 보직을 정리한 표는 아래와 같다.

<표 8> 제1기병군 출신 지휘관 중 피숙청 인원들의 숙청 직전 보직

	생몰연도	숙청 직전 보직
<b>러시아 내전 진급자 (총 13명)</b>		
B. N. 아카토프	1899-1938	제12기병사단 사단장(캅카스 군관구)
N. N. 리트비노프	1896-?	제7기병군단 군단장
I. V. 셸리바노프	1886-1942	제19기병사단 사단장
D. A. 바이네르흐-바냐르흐	1888-1938	제5기병군단 군단장
N. V. 라키틴	1895-1937	제5기계화군단 군단장
D. F. 세르디치	1896-1937	제3기병군단 군단장 및 벨라루스 군관구 부관구장
V. M. 고닌	?-1940	제34보병군단 군단장
B. S. 고르바초프	1892-1937	우랄 군관구 군관구장
E. I. 고라초프	1892-1938	키예프 군관구 부군관구장 및 기병 군집단(Army Group) <sup>30)</sup> 지휘관
I. S. 니키틴	1897-1942	몽골군 최고 군사고문관
L. Ia. 바이네르	1897-1937	몽골군 최고 군사고문관
I. D. 코스고프	1891-1938	제4기병군단 군단장
F. A. 파르호멘코	1893-1962	제22기병사단 사단장 (OKDVA)
<b>1930년대 진급자 (총 2명)</b>		
A. F. 빅치콥스키	1899-1984	제37기병연대 연대장(제3기병군단)
G. A. 그리고리얀	1899-1970	제65기병연대 연대장(제1기병사단)

30) 편제에서 군집단(army group)은 야전군(field army)과 군단(corps)보다 상위 단위이며, 야전군 2개 이상으로 구성된 10-30만 명 규모이다.

IV. ‘중심 작전(*glubokaia operatsiia*)’ 교리와 군부 숙청

## 1. 1935년과 1936년의 대규모 기동훈련

제1차 5개년 계획의 성과로 인해, 1930년대 적군은 빠른 속도로 현대화되고 있었다.<sup>31)</sup> 1931년 1월, 적군 지상군 병력은 55만 9,000명에서 1937년 1월에는 113만 5,000명으로 증가했고, 새로운 기갑부대와 공수부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다.<sup>32)</sup> 소련은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이었던 1928-1932년에만 3,949대의 전차와 ‘경장갑 전차(*tanketka*)’<sup>33)</sup>를 생산하였고, 계획 기간 마지막 해인 1932년에 세계 최초로 독립 기계화군단을 창설하기도 하였다. 1935년 말, 적군은 4개 기계화군단과 14개 기계화 여단을 보유하게 된다. 즉 1928년 말 92대에 불과했던 보유 전차는 1932년에는 1,401대 그리고 1935년에는 1만 180대로 증가하여 당시 가장 많은 기계화 장비를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sup>34)</sup>

31) 1931-1933년에 시행될 적군 현대화 계획은 1931년 1월 10일에 승인되었다. 당시 적군 총참모장 알렉산드르 예고로프(Aleksandr Il'ich Egorov, 1883-1939)는 1933년까지 적군은 3개 기계화 여단, 5개 전차 연대와 5개 전차 대대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적군은 10만 6,300명의 병력, 900문의 야포, 1,900대의 전차, 650기의 항공기, 1만 대의 차량 등을 추가로 확보하여, 1933년에는 81만 1,500명으로 확대될 터였다. RGVA, f. 7, op. 15, d. 14, ll.1-14.

32) O. N. Ken, *Mobilizatsionnoe planirovanie i politicheskie resheniia (Konets 1920-seredina 1930-kh godov)*, St. Petersburg: Izd. Evropeiskogo universiteta, 2002, p.459. 다음도 참고하라. M. V. Zakharov eds., *50 let vooruzhennykh sil SSSR*, Moscow: Voenizdat, 1968, p.198; N. E. Eleiseva, “Pla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Workers’ and Peasants’ Red Army (RKKa) on the Eve of War,” *Journal of Slavic Military Studies*, vol.8, 1995, pp.356-365.

33) ‘경장갑 전차(*Tanketka*)’는 1920-30년대에 사용된 약 4톤 중량의 1인승 혹은 2인승으로 설계된 경장갑 장비를 의미한다. M. Svirin, *Bronia kreпка. Istoriia sovetskogo tanka 1919-1937*, Moscow: Eksmo, 2005, p.384; G. L. Kholiavskii, *Entsklopediia tankov*, Minsk: Kharvest, 2006, p.576.

34) RGVA, f. 39352, op. 1, d. 28, l. 2. 다음도 보라. A. A. Grechko eds., *Istoriia Vtoroi mirovoi voiny, 1939-1949*, 12 vols., Moscow: Voenizdat, 1972-1982,

기존 연구들은 각각 벨라루스 군관구장 예로임 우보레비치와 키예프 군관구장 요나 야키르가 스탈린과 보로실로프 그리고 기병 지휘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혁신적인 기갑 교리를 창안하고 군사개혁을 주도하였으며, 결국 이러한 이유로 투하첵스키 사건에 연루되어 처형되었다고 주장한다. 적군의 급속한 현대화와 대규모 기동훈련이 스탈린과 국방 인민위원장인 보로실로프의 지원 없이 가능했느냐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흥미로운 점은 군 현대화에 반대하여 숙청을 주도했다고 평가받는 기병 지휘관의 상당수가 우보레비치와 야키르가 수행하였던 대규모 기동훈련과 관련하여 숙청된 점이다.

1930년대에 들어 적군은 상당한 자원을 투입하고 대형 장비를 운영하는 다수의 기동훈련을 실시하였다.<sup>35)</sup> 소련의 기갑 교리 발전과 기계화에 특히 의미 있었던 것은 1935년과 1936년에 키예프 군관구와 벨라루스 군관구에서의 대규모 기동훈련이었다.<sup>36)</sup> 특히 1935년 9월 12-17일 키예프 군관구에서 수행한 기동훈련은 1,200대의 기갑 차량과 600대의 항공기 그리고 총인원 6만 명 이상이 동원되었고, 독소전 이전 소련에서 수행되었던 군사훈련 중 그 규모가 가장 컸다. 기동훈련 바로 그 자체가 투하첵스

---

vol.1, p.270. 같은 시기 항공기 생산은 1928년 대비 170% 증가하였다. V. M. Ivanov, *Marshal M.N. Tukhachevskii*, Moscow: Voenizdat, 1990, p.254.

35) V. V. Osipov, "Obshchevoiskovye manevry kak vysshiaia forma obuchenii voisk," *Voennaiia mys'!*, no.7, 1988, p.23.

36) 기동훈련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대규모 기동 속에서 다양한 병종 간 협동작전 능력을 향상하고, 둘째, 새로운 군사기술과 군사교리, 구체적으로는 중심 전투(*glubokii boi*) 교리와 중심 작전(*glubokaia operatsiia*) 교리를 실제로 구현하는 것이었다. "Manevry Kievskogo voennogo okruga 1935," *Sovetskaia voennaiia entsiklopediia*, vol.5, pp.121-122. 중심 작전이론은 전체 중심에서 동시적인 압박을 가함으로써 적의 방어를 분쇄를 목표로 한다. 기갑부대, 보병, 포병, 그리고 항공기와 공수부대 간 밀접한 상호공조는 필수 불가결한 전제조건이었다. 중심 작전 교리에서 기병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이정하, 「K. E. 보로셀로프와 적군(赤軍) 기병대: 기술결정론(Technical Determinism)에 대한 반론」, 『서양사연구』, 제49집, 2013, 123-154쪽.

키 등이 주창하였던 중심 작전(*glubokaia operatsiia*)을 구현하는 장이었다. 적군 최고 사령부 이하 기갑 대대와 포병이 더해져 한층 강화된 보병 사단이 적의 요새화된 방어선 전체에 압박을 가하면, 기갑 장비로 보강된 기병 군단이 적 방어선을 돌파하는 돌파그룹(*gruppya proryva*) 역할을 맡고, 이 과정에서 대규모 공수부대가 돌파그룹과 협력하여 작전에 투입될 예정이었다. 일단 방어선을 돌파하면 기계화군단과 기병 사단이 적을 포위 섬멸할 터였다. 특히 키예프 군관구의 대규모 기동훈련에서는 공수부대 병력 1,188명이 참여한 세계 최초의 낙하 훈련이 수행되기도 하였다.<sup>37)</sup>

일견 기동훈련은 성공적이었던 듯하다. 1935년 12월에 열린 국방회의(*Sovet oborony*)에서의 연설에서 투하첵스키는 키예프 군관구에서의 대규모 기동훈련과 이듬해 벨라루스 군관구에서 수행될 대규모 기동훈련을 언급하며 “적군이 해마다 엄청난 성공을 이루고 있으며, 그 덕분에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고무되어 있다. 우리의 유능한 지휘관들은 군사적 과업을 능숙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찬사를 보냈다.<sup>38)</sup> 벨라루스 군관구장 우브레비치 또한 1936년 9월 키예프 군관구의 기동훈련 이후, “기동훈련의 주요 목표는 다가올 전쟁에서 적의 강력한 방어선을 돌파하고 반격을 격퇴하는 데에 있다. 기동훈련은 국방 인민위원장 동지[보로실로프]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말했다.<sup>39)</sup> 그러나 기동훈련에 대한 이들의 평가는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것이 아니었다.

<sup>37)</sup> M. A. Gareev, *Obshchevoiskoye ucheniia*, 2nd ed. Moscow: Voenizdat, 1990, p.105. 이 기동훈련에는 보로실로프를 포함한 적군 주요 지휘관들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지의 해외 군사전문가들도 참관하고 있었다. M. V. Zakharov, *General'nyi shtab v predvoennye gody*, Moscow: Voenizdat, 1989, p.98, 103.

<sup>38)</sup> P. V. Mazurkevich, eds., *Voennyi sovet pri narodnom komissare oborony SSSR. Dekabr' 1935 g.*, Moscow: RO SPEN, 2008, pp.45-46.

<sup>39)</sup> P. N. Aleksandrov and V.I. Savost'ianov, *Komadarm Uborevich: Vospominaniia družei soratnikov*, Moscow: Voenizdat, 1964, pp.214-215.

이듬해인 1936년 말에 열린 국방회의에서 1935년과 1936년에 수행한 대규모 기동훈련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1930년대 적군의 주요 군사목표 중 하나는 새로운 군사기술과 장비 운용능력의 습득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엄청난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되었음에도, 지휘관들의 전투 숙련도와 장비 운용능력이 지극히 낮았다는 점이다. 기갑부대는 전반적으로 훈련이 부족했고, 그 결과 적의 기갑부대를 공격하는 대형은 “순식간에 뒤죽박죽이 되어버리고는” 하였다.<sup>40)</sup> 특히 기갑 장비 운용 시 정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1935년과 1936년의 대규모 기동훈련에서는 공히 정찰 활동 자체가 아예 없었다.<sup>41)</sup> 당시 적군 전투훈련국(*Upravleniia boevoi podgotovki RKKA: UBP RKKA*) 수장으로서는 기동훈련을 참관했던 알렉산드르 세다킨(*Aleksandr Ignat'evich Sediakin, 1893-1938*)에 따르면, 기동훈련에서 전차부대들은 무턱대고 전진만 할 뿐이었다. “전차부대는 정찰과 정보획득에서 어떤 ‘적극성’도 보이지 않았다.”<sup>42)</sup> 그 결과, 키예프 군관구 소속 제15기계화사단과 제17기계화사단의 T-26 전차들은 계속해서 “빈 공간에(*po pustomu mestu*)”에나 포를 쏘아대기 일쑤였고, 벨라루스 군관구 소속 제5기계화사단과 제21기계화사단의 BT-7 전차들은 번번히 적의 매복에 걸려 피해를 입었다. “실제 전투였다면 전차부대들은 모두 [적에게] 완파되었을 것이다.”<sup>43)</sup> 이외에도 훈련준비의 미비와 불충분한 보급 그리고 투입된 자원과 장비의 상당 부분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유용되었음이 적발되었고, 훈련 자체에 대한 보고서가 조작되었다는 것도 드러났다.<sup>44)</sup>

40) RGVA, f. 31983, op. 2, d. 213, l. 57; f. 25880, op. 4, d. 80, l. 469, 482-483.

41) RGVA, f. 4, op. 16, d. 19, l. 83, 174.

42) RGVA, f. 31983, op. 2, d. 213, l. 58.

43) RGVA, f. 31983, op. 2, d. 213, l. 93.

44) 이에 대해서는 RGVA, f. 4, op. 18, d. 54, l. 12; f. 31983, op. 2, d. 196, ll. 224ob, 205, 202-205; f. 31983, d. 213, ll. 42-58, 93; f. 25880, op. 80, ll. 578-589; f. 900, op. 1, d. 269, ll. 51-53 등을 보라.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 것은 기동훈련 이전에 예행연습을 거쳤다는 점이었다. 세다킨은 “이 [키예프 군관구에서 수행한] 기동훈련이 오로지 예행연습을 거쳤기 때문에 엄청난 성공(*kolossal'nyi uspekh*)을 거둔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고 결론 내렸다.<sup>45)</sup> 세다킨은 1936년 우보레비치가 책임을 맡고 있던 벨라루스 군관구의 기동훈련에 대해서도 동일한 평가를 내렸다. 그는 기동훈련 기간 중 한 훈련 심판관이 보고한 내용을 언급하였다. “내 훈련 심판관이 기동훈련을 참관하고 있는 동안, 한 지휘관이 나에게 와서 몇몇 기계화 여단이 특정 지점으로 향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그 부대를 공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 부대가 이군인지 적군인지 파악하지 못했지만, 그 지휘관은 계속 [상대 부대를]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 지휘관에게 어떻게 [적군인지를] 확인하냐고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답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부대를 공격하기로 미리 약속을 했습니다.’”<sup>46)</sup>

당시 극동전선군<sup>47)</sup> 사령관이자 훗날 숙청에 희생되었던 바실리 블류헤르(*Vasili Konstantinovich Bliukher*, 1890-1938)도 대규모 훈련이 있기 전 사전에 연습하는 ‘보여주기식 훈련행태’가 적군에 만연해 있는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블류헤르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기동훈련이 어떻게 진행될지 사전에 알려주고 각 부대가 해야 할 임무를 미리 연습할 경우, 부대의 훈련 및 전투태세 수준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대들이 예상치 못한 환경에서 훈련을 진행해야 (진정한 의미의) 기동훈련이 될 수 있다. 이들 기동훈련은 몇 달 전에 지휘관들이 훈련 지역을 미리 조사한 후 기동훈련을 [미리 짜놓은 계획에 맞추어] 진행하였다. 이것은 의도적인 사기 행각이고, 아무리 좋게

45) 러시아 국립사회정치사문서고(*Rossiiskii Gosudarstvennyi Arkhiv Sotsial'no-Politicheskoi Istorii*, 이하 RGASPI), f. 17, op. 165, d. 60, l. 23.

46) RGASPI, f. 17, op. 165, d. 60, l. 24.

47) 극동전선군은 1938년 6월에 극동 군관구에서 특별적기극동군(OKDVA)을 전신으로 편성되었다. *Sovetskaia voennaia entsiklopediia*, vol.13, p.9.

본다고 해도 기만일 뿐이다.<sup>48)</sup>

## 2. 1935-1936년 대규모 기동훈련과 관련된 피속청 지휘관

새로운 군사기술과 군사적 변화에 반대했던 기병 지휘관이 자신들의 주도권 상실을 우려하여 군부 숙청을 주도했다는 이전 연구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도리어 스탈린과 보로실로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야키르와 우보레비치와 같은 소위 ‘혁신적인 지휘관’은 새로운 교리 발전을 위한 대규모 기동훈련에서 군기 문란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벨라루스 군관구와 키예프 군관구의 많은 지휘관도 군관구장이었던 야키르와 우보레비치와 함께 숙청되었을 것이다. 새로운 교리를 대표하는 야키르와 우보레비치 그리고 양 군관구 지휘관의 대규모 숙청은, 기병 지휘관이 군부 숙청을 주도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로 제시되어 왔다. 즉 기존의 연구는 바로 이 지점에서 마치 모든 것이 설명된 듯, 더 이상의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았다.

본고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것은, 야키르와 우보레비치가 수행했던 대규모 기동훈련과 관련하여 23명의 기병 지휘관이 숙청되었다는 사실이다. 대규모 기동훈련과 관련하여 숙청된 적군 기병 지휘관의 비율은 피속청 지휘관 61명의 37.7%에 달하였다. 아래는 기동훈련과 관련된 군기 문란으로 숙청된 23명을 연대장(급) 진급 시기로 분류한 표이다.

<표 9> 대규모 기동훈련 관련 23명의 피속청 지휘관

	생몰연도	숙청 직전 보직
<b>러시아 내전 진급자 (10명)</b>		
D. A. 바이네르흐-바냐르흐	1888-1938	제5기병군단 군단장
N. V. 라키티	1895-1937	제5기계화군단 군단장

<sup>48)</sup> RGASPI, f. 17, op. 165, d. 60, l. 220.

D. F. 세르디치	1896-1937	제3기병군단 군단장 및 벨라루스 군관구 부군관구장
P. R. 포타펜코	1896-1938	제9기병사단 부사단장
I. V. 두빈스키	1898-1989	제4전차여단 여단장
M. A. 데미체프	1885-1937	제1기병군단 군단장
N. N. 크리보루치코	1887-1938	벨라루스 군관구 기병부문 부참모장
K. P. 우샤코프	1896-1943	제9기병사단 (제2기병군단)
A. V. 고르바토프	1891-1973	제2기병사단 (제1기병군단)
E. I. 고랴초프	1892-1938	키예프 군관구 부군관구장 및 기병 군집단(Army Group) 지휘관
<b>1920년대 진급자 (8명)</b>		
N. V. 프로보투로프	1900-1955	제5기병사단 사단장(제2기병군단)
I. G. 키리첸코	1894-1938	제23기병사단 사단장(제7기병군단)
N. I. 미숙	1895-1938	제3기병사단 (제2기병군단)
S. P. 즈빈	1894-1941	제25기병사단 부사단장(제5기병군단)
A. B. 보리소프	1901-1942	제1기병군단 참모장
A. P. 구세프	1894-1959	제27기병사단 사단장(제6기병군단)
P. Io. 안토노프	1900-1938	제24기병연대 연대장(벨라루스 군관구)
K. V. 파블롭스키	1894-1941	제29기병사단 사단장(벨라루스 군관구)
<b>1930년대 진급자 (5명)</b>		
A. F. 빅치콥스키	1899-1984	제37기병연대 연대장(제3기병군단)
M. Ia. 콜레스니첸코	1899-1938	제24경전차여단 여단장
M. M. 보고몰로프	1897-1940	제36전차여단 여단장
I. K. 크랍초프	1896-1964	제11기계화연대 연대장(제6기병군단)
V. I. 니치포르비치	1900-1945	제39기병연대 연대장(제3기병군단)

군부 숙청을 스탈린과 보로실로프를 중심으로 한 기병 지휘관과 투하첵스키를 중심으로 한 기갑 교리 주창자 간의 갈등으로 이해하는 주장은 논리적 모순이다. 즉 기존 연구의 논리에 따르면, 이들 23명의 지휘관은 자신들이 계획하고 주도했던 군부 숙청에 희생된 것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투하첵스키 등이 주창하였던 중심 작전 이론을 구현하고자 했던 대규모 기동훈련과 관련하여 숙청당한 것이 된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 23명의 피소청 지휘관 중 5명이 다른 아닌 스탈린 등과 러시아 내전 시기부터 개인적 교분을 맺고 있던 제1기병군 출신 지휘관이라는 점이다. 환언하면 199명의 적군 기병 지휘관 중 61명(30.7%)이 숙청되었고, 이 61명 중 23명(37.7%)이 중심 작전 교리를 위해 실시하였던 대규모 기동훈련과 관련하여 숙청당하였고, 이 23명 중 5명(21.7%)이 바로 제1기병군 출신이었다. 아래는 5명의 지휘관에 관한 정보이다.

<표 10> 제1기병군 출신 중 기동훈련과 관련하여 숙청된 지휘관들

	러시아 내전 시기 보직	숙청 당시 보직
D. A. 바이네르흐-바나르흐	제1기병여단 여단장 (제4기병사단)	제5기병군단 군단장
N. V. 라키틴	제2기병여단 여단장 (제4기병사단)	제5기계화군단 군단장
D. F. 세르디치	제7기병사단 사단장	제3기병군단 군단장 및 벨라루스 군관구 부군관구장
E. I. 고랴초프	제11기병여단 여단장 (제4기병사단)	키예프 군관구 부군관구장 및 기병 군집단(army group) 지휘관
A. F. 브치콥스키	기병중대 중대장 (제4기병사단)	제37기병연대 연대장 (제3기병군단)

지금까지 살펴본 사실들을 통해, 왜 당시 전략적으로 중요했던 벨라루스 군관구와 키예프 군관구에서 숙청이 집중되었는지도 이해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대규모 기동훈련이 상징했던 새로운 군사교리와 세 명의 지휘관 즉 투하첵스키, 야키르, 그리고 우보레비치의 관계를 군부 숙청의 주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두 군관구에서 적발된 군기 문란이 숙청의 주요 원인이었다.<sup>49)</sup> 이는 기존 해석이 기반하고 있던 설명

49) 실제로 피소청 사례 중 군기 문란으로 인한 것은 많았다. 대표적인 또 다른 사례

틀이 군부 숙청을 설명하는데 전혀 유효하지 못하며, 군부 숙청을 포함한 독소전 이전 소련의 당군 관계 연구가 완전히 다른 기반 위에서 수행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 V. 글을 맺으며

군부 숙청이 마무리되었던 1938년 4월 8일 당시 국방인민위원장 보로실로프는 적군 지휘관들에게 보낸 한 통의 서신에서 군부 숙청과 군기 문란 척결을 연결 지으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엄격한 규율이 없는 군대는 결코 존립할 수 없다. 전투태세는 결국 규율의 정도에 달려있다. [...] 우리에게 공기가 필요하듯이, 강고하고 강철같은 규율이 우리 [적군]에게 필요하다!”<sup>50)</sup> 1930년대 소련 사회는 제1차 5개년계획의 성과로 인

---

는 블류헤르가 지휘하던 특별적기극동군(OKDVA)의 군기 문란으로 인한 숙청이다. 블류헤르의 지휘 책임방기 및 독직에 관해서는 다음을 보라. RGVA, f. 4, op. 18s, d. 51, ll. 113-121. 특히 몽골에 주둔하고 있던 제57특별군단의 대규모 군기 문란과 ‘할힌골 전투(*Boi na reke Khalkhin-Gol*)’의 지휘 책임을 물어 숙청이 있었다. 제57특별군단의 군기 문란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GVA, f. 9, op. 29, d. 318, ll. 79, 106-108; op. 39s, d. 54, ll. 17-28, 45, 80-81, 137, 153; Vladimir S. Mil'bach, “Repression in the 57th Special Corps (Mongolian People's Republic),” *Journal of Slavic Military Studies*, no.1, 2002, pp.91-122. 피숙청 지휘관 61명 중 16.4%에 해당하는 10명의 지휘관이 이에 해당하며, 제1기병군 출신 중 4명 즉 당시 몽골군 최고 고문관이었던 이반 니키티(Иван Семенович Никитин, 1897-1942)과 레오니드 바이네르(Leonid Iakovlevich Vainer, 1897-1937), 제7기병군단 군단장 니콜라이 리트비노프(Nikolai Nikolaevich Litvinov, 1896-?), 제2기병사단 사단장 페오판 파르호멘코(Feofan Agapovich Parkhomenko, 1893-1962)도 같은 이유로 숙청되었다. 이들 4명 모두 제1기병군 출신이자 ‘러시아 내전 진급자’이다.

<sup>50)</sup> RGVA, f. 9, op. 36, d. 3386, ll. 16-17. 보로실로프의 이러한 언급이 있은지 약 1년 뒤 또 다른 제1기병군 출신 지휘관이 명령 불이행과 폭음을 포함한 군기 문란으로 체포되었다. 바실리 고닌은 1921년 제1기병군 제4기병사단 제2여단장에 임

한 자신감과 함께 다가오는 새로운 전쟁의 불안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거대한 인적·물적 자원의 투입과 정부의 지원이 있었음에도, 적군은 군기 문란, 훈련 부족, 지휘관들의 자질 부족 등 러시아 내전부터 존재하던 고질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군부 숙청은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이자 유일한 사회주의 국가였던 소련이 임박한 전쟁을 앞두고 취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귀결일 수 있다.

군부 숙청의 원인을 군부 내 영향력 유지와 조직기반인 기병 병과 보호를 목적으로 기병 지휘관들이 투하첵스키를 중심으로 한 일군의 지휘관을 미리 계획된 절차에 따라 제거한 것이라는 기존 연구의 주장은, 기병 지휘관에 대한 기초적인 이력 분석만으로도 별다른 근거가 없는 신화였음이 드러났다. 투하첵스키 등의 소위 ‘혁신적인 지휘관들’은 숙청의 주요 목표가 아니었으며, 적군 기병 지휘관은 숙청의 수혜자이기는커녕 상당수가 숙청의 희생자였다. 이는 스탈린과 보로실로프의 정치적 비호를 받았고 ‘숙청의 주도자’라고 여겨졌던 제1기병군 출신 지휘관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1920년대 진급자’나 ‘1930년대 진급자’와 비교해볼 때, 러시아 내전에서의 전공과 영향력 있는 정치계 인물과의 인적 교분을 통해 군부 엘리트로 성장했던 ‘러시아 내전 진급자’에 숙청이 집중되었던 것도 이전과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이 이들의 숙청을 스탈린과 보로실로프에 의한 ‘경쟁자 제거’ 차원으로 보았다면, 실제로 이들의 숙청은 군기 문란에 대한 문책과 군부의 상태에 대한 소련 정부의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1930년대 말 소련의 군부 숙청은 군사교리를 둘러싼 지휘관 간의 갈등, 스탈린의 권력욕이나 ‘트로츠키파 및 반혁명 분파주의 척결’과 같은 정치적인 문제, 혹은 정치계 인물과 지휘관 간의 갈등으로 치환할 수 없는 다른 측면을 포함하고 있었다.

---

명된 이후 1933년에는 제7기병사단장 그리고 1938년 숙청 직후에는 제5기병군단장까지 승진하였으나, 1939년 핀란드와의 전쟁 당시 폭음과 장기간 지휘 이탈로 인해 1940년 처형되었다. RGVA, f. 9, d. 75, l. 251.

1930년대 말 군부 숙청을 스탈린과 몇몇 지휘관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했던 틀 대신, 지휘관에 대한 이력 분석은 군부 숙청의 원인이 정치적 측면이나 사상적 측면 혹은 스탈린의 권력욕보다는 개별 지휘관의 자질 부족 혹은 군기 문란이 숙청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군부 숙청을 넘어 소련 사회 전반에서 발생했던 대숙청(Great Purge)을 정치분과 간 투쟁과 독재자 개인의 폭력보다는, 근대 국가 만들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국가 폭력 일반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근거 또한 제공한다.

러시아 내전을 승리로 이끌고 전후 군부 엘리트를 형성하였던 기병 지휘관에 대한 이력 분석은 소련 정치-군사사의 여러 측면을 새롭게 설명할 실마리를 제공한다. 본고는 사료 부족과 지금까지의 ‘관행’을 타개하기 위한 시도의 출발점이다.

투고일: 2019. 10. 31. 심사완료일: 2019. 12. 2. 게재확정일: 2019. 12. 9.

주제어: 적군(赤軍), 적군(赤軍) 기병 지휘관, 숙청, 집단전기, 제1기병군

[부록]

숙청 직전 적군 기병 지휘관 199명의 기초 정보  
(연대장 진급 시기로 구분)

□ 러시아 내전 진급자 (56명)

순서	이름	생몰년도	민족	사회경 제적 배경	러시아 제국군에 서의 계급
1	보리스 아카토프 (Boris Nikolaevich Akatov)	1899-1938	러시아	?	?
2	이오시프 아파나센코 (Iosif Rodionovich Apanasenko)	1890-1943	러시아	농민	준사관
3	니콜라이 블룸 (Nikolai Iakovlevich Blium)	1893-1942	독일	사무직 노동자 (Sluzhas hchie)	준사관
4	세몬 부돈너 (Semen Mikhailovich Budennyi)	1888-1973	러시아	농민	부사관
5	야코프 체레비첸코 (Iakov Timofeevich Cherevichenko)	1894-1976	우크라 이나	농민	부사관
6	표트르 다비도프 (Petr Mikhailovich Davydov)	1894-1973	러시아	농민	부사관
7	미하일 데미체프 (Mikhail Afanas'evich Demichev)	1885-1937	러시아	농민	준사관
8	바르폴로메이 드미트리엔코 (Varfolomei Ivanovich Dmitrienko)	1896-1938	우크라 이나	농민	준사관 (중위)
9	알렉산드르 골리코프 (Aleksandr Grigor'evich Golikov)	1896-1937	러시아	소상공 인 (Meshch anstvo)	사관 (중위)

순서	이름	생몰년도	민족	사회경제적 배경	러시아 제국군에서의 계급
10	바실리 골루보프스키 (Vasilii Stepanovich Golubovskii)	1891-1961	러시아	농민	부사관
11	바실리 고닌 (Vasilii Matveevich Gonin)	?-1940	러시아	농민	?
12	보리스 고르바초프 (Boris Sergeevich Gorbachev)	1892-1937	벨라루스	농민	부사관
13	엘리세이 고라초프 (Elisei Ivanovich Goriachev)	1892-1938	?	?	부사관
14	알렉산드르 고르바토프 (Aleksandr Vasil'evich Gorbатов)	1891-1973	러시아	농민	부사관
15	오카 고로도비코프 (Oka Ivanovich Gorodovikov)	1879-1960	칼무크	농민	부사관
16	표트르 그리고리예프 (Petr Petrovich Grigor'ev)	1892-1937	러시아	노동자	부사관
17	마카르 야킴로프 (Makar Mikhailovich Iakimov)	1891-1938	카지크	카지크	사병
18	블라디미르 카찰로프 (Vladimir Iakovlevich Kachalov)	1890-1941	러시아	농민	준사관 (대위)
19	니콜라이 카쉬린 (Nikolai Dmitrievich Kashirin)	1888-1938	카지크	카지크	사관
20	미하일 하츠킨레비치 (Mikhail Georgievich Khatskilevich)	1895-1941	유대인	농민	사병
21	이오시프 호룬 (Iosif Ivanovich Khorun)	1884-1962	러시아	노동자	부사관
22	바실리 크나가 (Vasilii Ivanovich Kniga)	1883-1961	우크라이나	농민	준사관
23	파벨 코르준 (Pavel Petrovich Korzun)	1892-1943	벨라루스	귀족	부사관
24	이반 코스고프 (Ivan Dmitrievich Kosogov)	1891-1938	러시아	사제	준사관
25	니콜라이 크리보루치코 (Nikolai Nikolaevich Kriivoruchko)	1887-1939	우크라이나	농민	부사관

순서	이름	생몰년도	민족	사회경 제적 배경	러시아 제국군에 서의 계급
26	바실리 크류첸킨 (Vasilii Dmitrievich Kriuchenkin)	1894-1976	러시아	?	부사관
27	미하일 쿠즈네초프 (Mikhail Andreevich Kuznetsov)	1896-1941	러시아	농민	준사관
28	니콜라이 리트비노프 (Nikolai Nikolaevich Litvinov)	1896-?	우크라 이나	노동자	준사관
29	이반 루네프 (Ivan Fedorovich Lunev)	1896-1962	러시아	농민	부사관
30	표트르 마카로프 (Petr Grigor'evich Makarov)	1898-1943	러시아	농민	사병
31	이반 마나기로프 (Ivan Mefod'evich Managarov)	1898-1981	러시아	노동자	사병
32	야코프 멜쿠모프 (Iakov Akad'evich Mel'kumov)	1885-1962	아르메 니아	노동자	사관 (대위)
33	이반 니키티 (Ivan Semenovich Nikitin)	1897-1942	러시아	사무직	부사관
34	페오판 파르호멘코 (Feofan Agapovich Parkhomenko)	1893-1962	러시아	농민	준사관
35	미론 폴루노프 (Miron Lvovich Polunov)	1892-1937	유대인	?	?
36	판텔레이몬 포타펜코 (Pantelimon Romanovich Potapenko)	1886-1938	우크라 이나	농민	N/A
37	니콜라이 라키티 (Nikolai Vasil'evich Rakitin)	1895-1937	러시아	인텔리 젠치야 (교사)	사관 (대위)
38	콘스탄틴 로코슈스키 (Konstantin Konstantinovich Rokossovskii)	1896-1968	폴란드	사무직 노동자	부사관
39	드미트리 라비셰프 (Dmitrii Ivanovich Riabyshev)	1894-1985	카자크	카자크	사병
40	표트르 루드추크 (Petr Lukich Rudchuk)	1893-1969	벨라 루스	농민	사관

순서	이름	생몰년도	민족	사회경제적 배경	러시아 제국군에서의 계급
41	세르게이 사비츠키 (Sergei Mikhailovich Savitskii)	1897-1937	우크라이나	농민	준사관
42	이반 쉘리마노프 (Ivan Vasil'evich Selivanov)	1886-1942	러시아	농민	부사관
43	다니일 세르디치 (Danil Fedorovich Serdich)	1896-1937	세르비아	농민	부사관
44	티모페이 샵킨 (Timofei Timofeevich Shapkin)	1885-1943	카자크	카자크	부사관
45	야코프 셰코 (Iakov Vasil'evich Sheko)	1893-1938	러시아	농민	사관 (대위)
46	안드레이 시델니코프 (Andrei Nikanorovich Sidel'nikov)	1895-1983	러시아	농민	부사관
47	피트르 소벤니코프 (Petr Petrovich Sobennikov)	1894-1960	러시아	귀족	사관 (중위)
48	세몬 티모셴코 (Semen Konstantinovich Timoshenko)	1895-1970	우크라이나	농민	부사관
49	이반 틀레네프 (Ivan Vladimirovich Tiulenev)	1892-1978	러시아	노동자	준사관
50	콘스탄틴 우샤코프 (Konstantin Petrovich Ushakov)	1896-1943	러시아	귀족	사관 (중위)
51	레오니드 바이네르 (Leonid Iakovlevich Vainer)	1897-1937	유대인	수공업자	부사관
52	드미트리 바이네르흐바나르흐 (Dmitrii Anan'evich Vainerkh-Vaniarkh)	1888-1938	유대인	사무직 노동자	N/A
53	세르게이 비쉬넵스키 (Sergei Vladimirovich Vishnevskii)	1893-1967	러시아	귀족	사관 (대위)
54	이반 지베로프 (Ivan Georgievich Ziberov)	1897-1986	러시아	농민	부사관
55	예브게니 주라블료프 (Evgenii Petrovich Zhuravlev)	1896-1983	우크라이나	?	준사관

순서	이름	생몰년도	민족	사회경 제적 배경	러시아 제국군에 서의 계급
56	스테판 조토프 (Stepan Andreevich Zotov)	1882-1938	카자크	카자크	사관

□ 1920년대 진급자 (57명)

순서	이름	생몰년도	민족	사회경 제적 배경	러시아 제국군에 서의 계급
1	흐리스토프르 알라베르도프 (Khristofor Nikolaevich Alaverdov)	1895-1942	아르메 니아	농민	부사관
2	표트르 안토노프 (Petr Iosifovich Antonov)	1900-1938	러시아	수공업 자 (목수)	N/A
3	이반 아르타모노프 (Ivan Ivanovich Artamonov)	1898-1951	러시아	?	부사관
4	이반 바그라미안 (Ivan Khristoforovich Bagramian)	1897-1982	아르메 니아	노동자	준사관
5	미하일 바토르스키 (Mikhail Aleksandrovich Batorskii)	1890-1938	러시아	귀족	사관 (대령)
6	알렉산드르 바츨칼레비치 (Aleksandr Ivanovich Batskalevich)	1897-1969	벨라 루스	농민	부사관
7	바실리 벨로쿠스코프 (Vasilii Evlampievich Belokoskov)	1898-1961	러시아	농민	사병
8	쿠즈마 벨로쉬니첸코 (Kuz'ma Romanovich Beloshnichenko)	1895-1945	우크라 이나	농민	부사관
9	파벨 벨로프 (Pavel Alekseevich Belov)	1897-1962	러시아	사무직 노동자	준사관
10	아르카디 보리소프 (Arkadii Borisovich Borisov)	1901-1942	유대인	수공 업자	N/A

순서	이름	생몰년도	민족	사회경제적 배경	러시아 제국군에서의 계급
11	니콜라이 드레이예르 (Nikolai Mikhailovich Dreier)	1891-1969	러시아	귀족	사관 (대위)
12	안드레이 예료멘코 (Andrei Ivanovich Eremenko)	1892-1970	러시아	농민	부사관
13	리하르트 그로스베르크 (Rikhard Karlovich Grosberg)	1896-1938	라트비아	?	사병
14	예브도킴 모길롭치크 (Evdokim Andreevich Mogilevchik)	1890-1947	벨라루스	농민	부사관
15	니콜라이 엡세예프 (Nikolai Fedorovich Evseev)	1887-1937	러시아	노동자	N/A
16	베나민 가이두코프 (Veniamin Andreevich Gaidukov)	1895-1980	우크라이나	농민	준사관
17	안드레이 구세프 (Andrei Pavlovich Gusev)	1894-1959	러시아	노동자	사관
18	니콜라이 구세프 (Nikolai Ivanovich Gusev)	1897-1962	러시아	농민	부사관
19	드미트리 구스티셰프 (Dmitrii Ivanovich Gustishev)	1887-1957	러시아	?	준사관
20	표트르 이바노프 (Petr Samsonovich Ivanov)	1898-1942	러시아	농민	준사관
21	표도르 캄코프 (Fedor Vasil'evich Kamkov)	1898-1951	러시아	노동자	사병
22	이그나티 카르페조 (Ignatii Ivanovich Kapezo)	1898-1987	벨라루스	농민	사병
23	니키포르 호루젠코 (Nikifor Gordeevich Khoruzhenko)	1896-1966	우크라이나	농민	부사관
24	이반 키리첸코 (Ivan Grigor'evich Kirichenko)	1894-1938	우크라이나	농민	부사관
25	표트르 코리트니코프 (Petr Konstantinovich Korytnikov)	1892-1961	러시아	소상공인 (Meshchans tvo)	준사관

순서	이름	생물년도	민족	사회경 제적 배경	러시아 제국군에 서의 계급
26	세르게이 코자체크 (Sergei Borisovich Kozachek)	1897-1971	우크라 이나	농민	부사관
27	파벨 쿠로츠킨 (Pavel Alekseevich Kurochkin)	1900-1989	러시아	농민	N/A
28	알렉산드르 막시모프 (Aleksandr Ivanovich Maksimov)	1893-1946	러시아	농민	준사관
29	콘드라트 멜니크 (Kondrat Semenovich Mel'nik)	1900-1971	우크라 이나	농민	N/A
30	키릴 메레츠크프 (Kirill Afanas'evich Meretskov)	1897-1968	러시아	농민	사병
31	미르 미르샤라포프 (Mir Kamil' Mir-Sharapov)	1900-1938	타타르	농민	N/A
32	니키타 미슈크 (Nikita Ivanovich Mishuk)	1895-1938	우크라 이나	농민	준사관
33	아파나시 모신 (Afanasii Nikolaevich Mosin)	1896-1937	러시아	농민	부사관
34	안드레이 니키티 (Andrei Grigor'evich Nikitin)	1891-1957	러시아	농민	부사관
35	이반 니쿨린 (Ivan Efimovich Nikulin)	1898-1937	러시아	농민	사병
36	콘스탄틴 노빅 (Konstantin Ignat'evich Novik)	1898-1942	러시아	농민	부사관
37	니콜라이 파크니스 (Nikolai Leonidovich Paknis)	1896-1938	벨라 루스	노동자	부사관
38	드미트리 파블로프 (Dmitrii Grigor'evich Pavlov)	1897-1941	러시아	농민	부사관
39	카지미르 파블롭스키 (Kazimir Vladislavovich Pavlovskii)	1894-1941	리투아 니아	사무직	부사관
40	이반 페트로프 (Ivan Efimovich Petrov)	1896-1958	러시아	수공 업자 (제화 공)	준사관

순서	이름	생몰년도	민족	사회경 제적 배경	러시아 제국군에 서의 계급
41	바실리 포포프 (Vasilii Stepanovich Popov)	1894-1967	러시아	농민	준사관
42	니콜라이 프로보토로프 (Nikolai Vladimirovich Provotorov)	1900-1955	러시아	농민	N/A
43	파벨 리발코 (Pavel Semenovich Rybalko)	1894-1948	우크라이 나	노동자	사병
44	니콜라이 셰스토팔로프 (Nikolai Mikhailovich Shestopalov)	1896-1941	러시아	농민	부사관
45	드미트리 슈미트 (Dmitrii Arkad'evich Shmidt)	1896-1937	유대인	사무직 노동자	준사관
46	그리고리 슈테른 (Griгорii Mikhailovich Shtem)	1900-1941	유대인	인텔리 겐치야	N/A
47	비탈리 심볼로코프 (Vitalii Nikolaevich Simvolokov)	1898-1992	러시아	농민	N/A
48	니콜라이 토체노프 (Nikolai Ivanovich Tochenov)	1896-1937	러시아	농민	부사관
49	아담 투르친스키 (Adam Petrovich Turchinskii)	1897-1979	폴란드	농민	사병
50	유리 발츠 (Iurii Vladimirovich Val'ts)	1897-1942	러시아	농민	부사관
51	페도르 바실리예프 (Fedor Vasil'evich Vasil'ev)	1896-1938	러시아	농민	준사관
52	바실리 볼스키 (Vasilii Timofeevich Vol'skii)	1897-1946	러시아	농민	사병
53	세르게이 보로비요프 (Sergei Il'ch Vorob'ev)	1903-1937	러시아	사무직 노동자	N/A
54	이반 자하레비치 (Ivan Vasil'evich Zakharevich)	1892-1944	벨라 루스	?	부사관
55	필리프 즈미첸코 (Filipp Feodos'evich Zhmachenko)	1895-1966	우크라이 나	농민	사병

순서	이름	생몰년도	민족	사회경 제적 배경	러시아 제국군에 서의 계급
56	게오르기 주코프 (Georgii Konstantinovich Zhukov)	1896-1974	러시아	농민	부사관
57	세몬 즈빈 (Semen Petrovich Zybin)	1894-1941	러시아	농민	부사관

□ 1930년대 진급자 (86명)

순서	이름	생몰년도	민족	사회경 제적 배경	러시아 제국군에 서의 계급
1	표트르 아흐류스틴 (Petr Nikolaevich Akhliustin)	1896-1941	러시아	농민	부사관
2	카를 안테르손 (Karl Emestovich Anderson)	1899-1976	라트비 아	노동자	N/A
3	바실리 흐렙초프 (Vasilii Andreevich Khlebtsov)	1894-1942	러시아	농민	부사관
4	드미트리 아페르킨 (Dmitrii Ivanovich Averkin)	1894-1941	러시아	농민	준사관
5	파블린 바리바노프 (Pavlin Andreevich Barabanov)	1898-1941	러시아	노동자	부사관
6	파벨 바티츠키 (Pavel Fedorovich Batitskii)	1910-1984	러시아	노동자	N/A
7	그리고리 벨로우소프 (Grigorii Antonovich Belousov)	1896-1954	러시아	?	부사관
8	그리고리 벨로프 (Grigorii Andreevich Belov)	1901-1994	러시아	농민	N/A
9	니콜라이 베로프 (Nikolai Nikanorovich Belov)	1896-1941	러시아	노동자	부사관
10	이브라гим 비크자노프 (Ibragim Paskaevich Bikzhanov)	1895-1988	타타르	농민	부사관
11	미하일 보고몰로프 (Mikhail Mikhailovich Bogomolov)	1897-1940	러시아	노동자	부사관

순서	이름	생몰년도	민족	사회경제적 배경	러시아 제국군에서의 계급
12	세몬 보르질로프 (Semen Vasil'evich Borzilov)	1893-1941	러시아	농민	부사관
13	알렉산드르 비치콥스키 (Aleksandr Fedorovich Bychkovskii)	1899-1984	우크라이나	농민	준사관
14	빅토르 체르노프 (Viktor Georgievich Chemov)	1899-1945	러시아	노동자	준사관
15	브세볼로드 두보프 (Vsevolod Borisovich Dubov)	1902-1975	러시아	?	N/A
16	일라리온 예시펜코 (Illarion Timofeevich Esipenko)	1894-1988	우크라이나	농민	사병
17	니콜라이 페클렌코 (Nikolai Vladimirovich Feklenko)	1901-1951	러시아	농민	N/A
18	알렉산드르 필라토프 (Aleksandr Alekseevich Filatov)	1895-1956	러시아	사무직 노동자	부사관
19	알렉산드르 글라드코프 (Aleksandr Vasil'evich Gladkov)	1902-1969	러시아	노동자	사병
20	바실리 글라골레프 (Vasilii Vasil'evich Glagolev)	1896-1947	러시아	인텔리겐치야	부사관
21	세몬 글로바츠키 (Semen Mikhailovich Glovatskii)	1889-1941	러시아	사무직 노동자	사병
22	바실리 골롭스코이 (Vasilii Sergeevich Golovskoi)	1895-1975	러시아	농민	준사관
23	니콜라이 골초프 (Nikolai Dmitrievich Gol'tsev)	1897-1942	러시아	노동자	부사관
24	미하일 골루베프 (Mikhail Ivanovich Golubev)	1900-1941	러시아	?	N/A
25	미하일 곤차로프 (Mikhail Dmitrievich Goncharov)	1891-1945	우크라이나	?	준사관
26	블라디미르 고르바초프 (Vladimir Konstantinovich Gorbachev)	1898-1955	벨라루스	농민	사병

순서	이름	생몰년도	민족	사회경 제적 배경	러시아 제국군에 서의 계급
27	그리고리 그리고리안 (Grigoriĭ Arkad'evich Grigorian)	1899-1970	아르메 니아	?	N/A
28	포르피리 구드즈 (Porfirii Martynovich Gudz')	1902-1969	우크라 이나	인텔리 겐치야	N/A
29	레프 일린 (Lev Dmitrievich Il'in)	1896-1970	러시아	농민	부사관
30	표트르 칼리니초프 (Petr Mikhailovich Kalinichev)	1901-1941	러시아	?	?
31	세르게이 카푸스틴 (Sergei Isaevich Kapustin)	1900-1943	러시아	?	N/A
32	그리고리 카리즈스키 (Grigoriĭ Ivanovich Kaizhskii)	1895-1971	러시아	농민	준사관
33	미하일 카자코프 (Mikhail Il'ich Kazakov)	1901-1979	러시아	농민	N/A
34	미하일 콜레즈니첸코 (Mikhail Iakovlevich Kolesnichenko)	1899-1938	우크라 이나	농민	N/A
35	미하일 콘스탄티노프 (Mikhail Petrovich Konstantinov)	1900-1990	러시아	사무직 노동자	N/A
36	티모페이 코르네예프 (Timofei Gavrilovich Korneev)	1898-1945	러시아	농민	사병
37	표도르 코스텐코 (Fedor Iakovlevich Kostenko)	1896-1942	우크라 이나	농민	부사관
38	이반 코토프 (Ivan Terent'evich Kotov)	1899-1938	러시아	노동자	부사관
39	이반 크랴프초프 (Ivan Kondrat'evich Kravtsov)	1896-1964	러시아	농민	부사관
40	블라디미르 크류코프 (Vladimir Viktorovich Kriukov)	1897-1959	러시아	사무직 노동자	준사관
41	세몬 크리보셰인 (Semen Moiseevich Krivoshein)	1899-1978	유대인	수공 업자	N/A
42	필리프 쿠두로프 (Filipp Fedorovich Kudiurov)	1898-1941	러시아	?	부사관

순서	이름	생몰년도	민족	사회경 제적 배경	러시아 제국군에 서의 계급
43	파벨 쿠르사코프 (Pavel Trofimovich Kursakov)	1897-1952	러시아	?	사병
44	이반 쿠즈민 (Ivan Kuz'mich Kuz'min)	1899-1980	러시아	?	준사관
45	알렉산드르 라디긴 (Aleksandr Fedorovich Ladygin)	1901-1988	카자크	카자크	부사관
46	니콜라이 로기노프 (Nikolai Loginovitch Loginov)	1896-?	러시아	?	?
47	안톤 로파틴 (Anton Ivanovich Lopatin)	1897-1965	러시아	농민	사병
48	미하일 말레예프 (Mikhail Fedorovich Maleev)	1899-1964	러시아	?	N/A
49	그리코리 말류코프 (Grigorii Fedorovich Maliukov)	1898-1977	러시아	?	사병
50	니콜라이 미하일로프 (Nikolai Filippovich Mikhailov)	1897-1972	러시아	농민	부사관
51	키릴 모스칼렌코 (Kirill Semenovitch Moskalenko)	1902-1985	우크라 이나	농민	N/A
52	이반 무직첸코 (Ivan Nikolaevitch Muzychenko)	1901-1970	러시아	선원	사병
53	블라디미르 니치포로비치 (Vladimir Ivanovich Nichiporovich)	1900-1945	러시아	?	N/A
54	바실리 니키포로프 (Vasilii Vasil'evich Nikiforov)	1899-?	러시아	?	N/A
55	마트페이 노보셀로프 (Matvei Zakhrovitch Novoselov)	1893-1940	러시아	?	?
56	세르게이 오구르초프 (Sergei Iakovlevitch Ogurtsov)	1898-1942	러시아	노동자	부사관
57	니콜라이 오슬리콥스키 (Nikolai Sergeevitch Oslikovskii)	1900-1971	우크라 이나	귀족	N/A
58	율리안 오바르 (Iul'ian Ivanovich Ovar)	1898-1950	리투아 니아	?	N/A

순서	이름	생몰년도	민족	사회경 제적 배경	러시아 제국군에 서의 계급
59	이오시프 판크라토프 (Iosif Nikolaevich Pankratov)	1897-1945	러시아	?	?
60	표도르 파닌 (Fedor Evdokimovich Panin)	1896-?	러시아	?	?
61	블라디미르 파람진 (Vladimir Kuz'mich Paramzin)	1896-1952	러시아	농민	사병
62	알렉세이 페르부진 (Aleksei Nikolaevich Pervushin)	1905-1975	러시아	?	N/A
63	바실리 폴로즈코프 (Vasilii Iudovich Polozkov)	1898-1944	러시아	농민	N/A
64	알렉세이 포포프 (Aleksei Fedorovich Popov)	1896-1946	러시아	농민	부사관
65	표도르 레미조프 (Fedor Timofeevich Remizov)	1885-1974	러시아	농민	부사관
66	파벨 랍첸코 (Pavel Antonovich Riabchenko)	1900-1941	러시아	?	N/A
67	게르쉬 로이텐베르크 (Gersh Moiseevich Roitenberg)	1900-?	유대인	?	N/A
68	세몬 셀리호프 (Semen Sevast'ianovich Selikhov)	1897-1942	러시아	농민	부사관
69	야코프 샤라부르코 (Iakov Sergeevich Sharaburko)	1895-1967	러시아	농민	사병
70	파벨 셸루드코 (Pavel Grigor'evich Shelud'ko)	1897-1974	우크라 이나	?	?
71	미하일 쉬시킨 (Mikhail Semenovich Shishkin)	1899-?	러시아	?	N/A
72	안 쉬트랄 (Ian Ianovich Shtal')	1900-1937	리트비 아	노동자	?
73	드미트리 숄가 (Dmitrii Fedorovich Shul'ga)	1893-1958	러시아	농민	부사관
74	세르게이 스클랴로프 (Sergei Fedorovich Skliarov)	1897-1943	러시아	농민	부사관
75	그리고리 스킴보르초프 (Grigorii Grigor'evich Skvortsov)	1900-1940	러시아	노동자	N/A

순서	이름	생몰년도	민족	사회경 제적 배경	러시아 제국군에 서의 계급
76	아파나시 슬리쉬킨 (Afanasii Nikitovich Slyshkin)	1893-1969	러시아	농민	부사관
77	니콜라이 스타르크코프 (Nikolai Vasil'evich Starkov)	1897-1941	러시아	?	N/A
78	아나톨리 스타벤코프 (Anatolii Vasil'evich Stavenkov)	1896-1968	벨라 루스	농민	부사관
79	필리프 주쉬치이 (Filipp Grigor'evich Sushchii)	1895-1941	러시아	?	?
80	마카르 테레힌 (Makar Fomich Terekhin)	1896-1967	러시아	농민	부사관
81	세몬 티모츠킨 (Semen Ivanovich Timochkin)	1898-?	러시아	?	사병
82	마트베이 우센코 (Matvei Alekseevich Usenko)	1898-1943	우크라 이나	농민	사병
83	블라디미르 바쉬케비치 (Vladimir Romanovich Vashkevich)	1900-1970	?	?	N/A
84	니콜라이 베데네예프 (Nikolai Denisovich Vedeneev)	1897-1964	러시아	농민	부사관
85	야코프 브론스키 (Iakov Nikiforovich Vronskii)	1895-1964	러시아	?	부사관
86	표도르 자하로프 (Fedor Dmitrievich Zakharov)	1894-1969	러시아	농민	N/A

## 참고문헌

### 1. 러시아국립군사문서고 (*Rossiiskii Gosudarstvenni Voemyi Arkhiv, RGVA*)

Fond 4, 국방인민위원회 *Upravlenie delami pri narodnom komissare oborony*

Fond 9, 적군(赤軍) 정치국 *Politicheskoe upravlenie RKKA*

Fond 100, 대(對) 크라스노프-테니킨 남부전선군 *Upravlenie armiiami iuznogo fronta (protiv Krasnova i Denikina)*

Fond 191, 제8군 *Upravlenie 8 armii*

Fond 900, 제17보병군단 *Upravlenie 17 strelkovogo korpusa*

Fond 31983, 적군 전투훈련국 *Upravlenie boevoi podgotovki krasnoi armii*

### 2. 러시아연방국립문서고 (*Gosudarstvennyi Arkhiv Rossiiskoi Federazii, GARF*)

Fond R7523, 소련 최고 소비에트 *Verkhovnyi sovet SSSR*

### 3. 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서고 (*Rossiiskii Gosudarstvennyi Arkhiv Sotsial'no-Politicheskoi Istorii, RGASPI*)

Fond 17, 소련공산당중앙위원회 *Tsentral'nyi Komitet KPSS (TsK KPSS) (1898, 1903-1991)*

### 4. 논저

이정하, 「K.E. 보로셀로프와 적군(赤軍) 기병대: 기술결정론(Technical Determinism)에 대한 반론」, 『서양사연구』 49, 2013.

A. A. Berezovskii eds., *Geroi-osvoboditeli Cherkasshchiny*, 2nd ed.

- Dnepropetrovsk: 'Promin', 1980.
- A. A. Grechko eds., *Istoriia Vtoroi mirovoi voiny, 1939-1949*, 12 vols. Moscow: Voenizdat, 1972-1982.
- A. Aleshin ed., *Marshaly Sovetskogo Soiuz: Lichnye dela rasskazyvaiut*, Moscow: Liubimaia kniga, 1996.
- A. Ia Soshnikov eds., *Sovetskaia kavaleriia: Voенno-istoricheskii ocherk*, Moscow: Voenizdat, 1984.
- A. K. Apal'kov eds., *Podvigi vo imia otchizny: Dokumental'nye ocherki o Geroiakh Sovetskogo Soiuz, ruozhentsakh Khar'kova i Khar'kovskoi oblasti*, 2nd ed. Khar'kov: 'Prapor', 1985.
- A. M. Sinitsyn, *Geroi ognennykh let: Ocherki o moskvichakh-geroiakh Sovetskogo Soiuz*, 8 vols. Moscow: Moskovskii rabochii, 1975-1985.
- A. N. Kiselev, ed., *Polkovodtsy i voenachal'niki Velikoi otechestvennoi: Sbornik*, 3 vols. Moscow: Molodaia gvardiia, 1970-.
- A. O. Belykh eds., *Glavnoe avtobronetankovoe upravlenie: Liudi, sobytiia, fakty v dokumentakh*, 5 vols. Moscow: Ministerstvo oborony RF, 2004-2009.
- A. V. Filimonov, "'Osobaia papka' na komdiva K.K. Rokossovskogo," *Voemo-istoricheskii zhurnal*, no.9, 2006.
- A. Zotov, "Marshal Sovetskogo soiuz I.S. Konev," *Voенno-istoricheskii zhurnal*, no.12, 1977.
- Andrei A. Kokoshin, *Armiia i politika: Sovetskaia voенno-politicheskaia i voенno-strategicheskaia mysl' 1918-1991 gody*, Moscow: Mezhdunarodnye otnosheniia, 1995.
- "Avtobiografiia I. S. Koneva," *Voemo-istoricheskii zhurnal*, no.2, 1991.
- D. A. Volkogonov, *Triumf i tragediia: Politicheskii portret I. V. Stalina*,

- 2nd ed. Moscow: Novosti, 1990.
- D. Dragunskii, "Dvazhdy Geroi Sovetskogo Soiuza P. S. Rybalko," *Voenna-istoricheskii zhurnal*, no.11, 1974.
- D. M. Shein, *Tanki vedet Rybalko: Boevoi put' 3-ei Gvardeiskoi tankovoi armii*, Moscow: Eksmo, 2007.
- David M. Glantz, *Stumbling Colossus: The Red Army on the Eve of World War*, 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98.
- Dmitri Fedotoff-White, *The Growth of the Red Arm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44.
- E. Benes, *Memoirs of Dr. Eduard Benes: From Munich to New War and New Victory*, London: Arno Press, 1954.
- E. Wollenberg, *The Red Army*, London: Secker & Warburg, 1938.
- G. A. Kumanev, *Govoriat stalinskie narkomy*, Smolensk: Rusich, 2005.
- G. D. Obichkin, *Perepiska Sekretariata Tsk RKP (b) s mestnymi partiinymi organizatsiiami: Sbornik dokumentov*, Moscow: Gosizdat, 1957-.
- G. L. Kholiavskii, *Entsklopediia tankov*, Minsk: Kharvest, 2006.
- G. K. Zhukov, *Vospominaniia i razmyshleniia*, 2 vols. Moscow: Olma-Press, 2002.
- G. Rittersporn, *Stalinist Simplifications and Soviet Complications: Social Tensions and Political Conflicts in the USSR 1933-1953*, New York: Harwood Academic Pub., 1991.
- G. Solonitsyn, "Nachdiv A. Ia Parkhomenko: K 90-letiiu so dnia rozhdeniia," *Voenna-istoricheskii zhurnal*, no.11, 1976.
- I. Kolesnichenko, "K voprosu konflikte v Revvoensovete Iuzhnogo Fronta," *Voenna-istoricheskii zhurnal*, no.2, 1962.
- I. Lukes, "The Tukhachevsky Affair and President Edvard Benes,"

*Diplomacy and Statecraft*, no.7, 1996.

- I. N. Shkadov and A. A. Babakov eds., *Geroi Sovetskogo Soiuz: Kratkii biograficheskii slovar'*, 2 vols. Moscow: Voenizdat, 1987-1988.
- I. P. Uborevich, "Dva ochaga opasnosti (Vystuplenie komanduiushchego Belorusskim voennym okrugom komandarma 1 ranga na soveshchani v Zapadnom obkome VLKSM vesnoi 1936 g.)," *Voemo-istoricheskii zhurnal*, no.10, 1988.
- I. V. Stavitskii, "Geroi, polkovodets, communist (K 90-letiiu so dnia rozhdeniia Marshala Sovetskogo soiuz I. S. Koneva)," *Voprosy istorii KPSS*, no.12, 1987.
- Ilya I. Kuznetsov, "The Soviet Military Advisors in Mongolia 1921-39," *The Journal of Slavic Military Studies*, no.4, 1999.
- Iu. Petrov, *Partiinoe stroitel'stvo v sovetskoii armii i flote 1918-1961*, Moscow: Voenizdat, 1964.
- J. A. Armstrong, *The Politics of Totalitarianism: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from 1934 to the Present*, New York: Random House, 1961.
- J. A. Getty, *Origins of the Great Purges: The Soviet Communist Party Reconsidered 1933-193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 James Harris, "Encircled by Enemies: Stalin's Perceptions of the Capitalist World 1918-1941,"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no.30, 2007.
- John Erickson, *The Soviet High Command: A Military-Political History 1918-1941*, New York: St. Martin's, 1962.
- K. M. Simonov, "Bessedy s Marshalom Sovetskogo Soiuz I. S.

- Konevym,” *Glazami cheloveka moego pokoleniia: Razmyshleniia o I. V. Staline*, Moscow: ‘Novosti’, 1988.
- L. E Reshin and V. S. Stepanov, “Shchadenko, Zaporozhets, Kirponos, Kavalev, Konev-Zagovorshchiki?” *Voенno-istoricheskii zhurnal*, no.2, 1994.
- Leonid Kliuev, *Bor’ba za Tsaritsyn 1918-1919 gg. S 7 shemani na otdel’nykh listakh*, Moscow: Gosizdat, 1928.
- Lev Nikulin, *Marshal Tukhachevskii*, Moscow: Voenizdat, 1964.
- M. A. Gareev, *Obshchevoiskoye ucheniia*, 2nd ed. Moscow: Voenizdat, 1990.
- M. G. Vozhakin et al. eds., *Velikaia Otechestvennaia. Komandarmy: Voemyi biograficheskii slovar’*, Moscow: Kuchkovo pole, 2005.
- M. Svirin, *Bronia kreпка. Istoriiia sovetskogo tanka 1919-1937*, Moscow: Eksmo, 2005.
- M. V. Zakharov eds., *50 let vooruzhennykh sil SSSR*, Moscow: Voenizdat, 1968.
- \_\_\_\_\_, *General’nyi shtab v predvoennye gody*, Moscow: Voenizdat, 1989.
- Mary Habeck, *Storm of Steel: The Development of Armor Doctrine in Germany and the Soviet Union, 1919-1939*,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3.
- N. E. Eleiseva, “Pla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Workers’ and Peasants’ Red Army (RKKA) on the Eve of War,” *Journal of Slavic Military Studies*, vol.8, 1995.
- N. Iu. Kuleshova, “Voенno-doktrinal’nye ustanovskii Stalinskogo rukovodstva i repressi v Krasnoi Armii kontsa 1930-kh godov,” *Otechestvennaia istoriia*, no.2, 2001.

- Nikolai Semenovich Cherushev, *1937: Elita Krasnoi Armii na Golgofe*, Moscow: Veche, 2000.
- \_\_\_\_\_ and Iu. N. Cherushev et al. eds., *Rasstreliannaia elita RKKA: 1937-1941. Biograficheskii slovar'*, Moscow: Kuchkovo pole, 2012.
- O. N. Ken, *Mobilizatsionnoe planirovanie i politicheskie resheniia (Konets 1920-seredina 1930-kh godov)*, St. Petersburg: Izd. Evropeiskogo universiteta, 2002.
- Oleg Fedotovitch Suvenirov, *Tragediia RKKA, 1937-1938*, Moscow: Terra, 1998.
- \_\_\_\_\_, "Repressii v partiorganizatsii RKKA v 1937-1938," *Voprosy istorii KPSS*, no.6, 1991.
- \_\_\_\_\_, *1937. Tragediia Krasnoi Armii*, Moscow: Eksmo, 2009.
- P. N. Aleksandrov and V. I. Savost'ianov, *Komadarm Uborevich: Vospominaniia družei soratnikov*, Moscow: Voenizdat, 1964.
- P. W. Blackstock, "The Tukhachevsky Affair," *Russian Review*, no.28, April 1969.
- P. Poluboiarov, "Marshal bronetankovykh voisk P. S. Rybalko (K 90-letiiu so dnia rozhdeniia)," *Voенно-istoricheskii zhurnal*, no.11, 1984.
- Peter Holquist, "Conduct Merciless Mass Terror: Decossackization on the Don, 1919," *Cahiers du monde russe*, no.38, 1997.
- R. A. Savushkin, *Razvitie sovetskikh vooruzhennykh sil i voennogo iskusstva v mezhoennyi period (1921-iun' 1941 gg)*, Moscow: VPA imini V.I. Lenina, 1989.
- R. C. Tucker, *Stalin in Power: The Revolution from Above 1928-1941*, New York: Norton, 1992.

- R. Thurston, *Life and Terror in Stalin's Russi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6.
- Richard Harrison, *The Russian Way of War: Operational Art, 1904-1940*, 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1.
- Robert Conquest, *The Great Terror: Stalin's Purge of the Thirties*, London: Macmillan, 1968.
- Robert Service/윤길순 역, 『스탈린, 강철 권력』, 교양인, 2007: Robert Service, *Stalin: A Biography*, 2005.
- Roger R. Reese, "The Red Army and the Great Purges," J. A. Getty and R. T. Manning eds., *Stalinist Terror: New Perspectiv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 \_\_\_\_\_, *Stalin's Reluctant Soldiers: A Social History of the Red Army 1925-1941*, 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96.
- \_\_\_\_\_, *Red Commanders: A Social History of the Soviet Army Officer Corps 1918-1991*, 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5.
- S. A. Maev, *Ogon', bronja, manevr*, 2 vols. Moscow: Glavnoe avtobronetankovoe upravlenie MO RF, 1999-2001.
- S. M. Budennyi, *Proidennyi put'*, 3 vols. Moscow: Voenizdat., 1958-1973.
- Sbomik lits, nagrazhdennykh ordenom Krasnogo znamenii i pochetyim revoliutsionnym oruzhiem*, Moscow: Voenizdat, 1926.
- Sergei Minakov, *Stalin i zagovor generalov*, Moscow: Eksmo, 2005.
- Sheila Fitzpatrick, "Stalin and the Making of a New Elite, 1928-1939," *Slavic Review*, no.38, 1979.
- Shtab RKKA, *Spisok lits s vysshim obshchim voennym obrazovaniem sostoiashchikh na sluzhbe v Raboche-krest'ianskoi krasnoi armii*,

- Moscow: Voennaia tipografiia Shtaba RKKA, 1923.
- Sovetskaia voennaia entsiklopediia*, 8 vols. Moscow: Voenizdat, 1976-1980.
- Stephane Courtois, *The Black Book of Communism: Crimes, Terror, Repress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 Timothy J. Colton, *Commissars, Commanders, and Civilian Authority: The Structure of Soviet Military Politic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9.
- V. A. Zhilin, *Geroi-tankisty 1943-1945 gg.*, Moscow: Eksmo, 2008.
- V. M. Borodulina eds., *Navechno v serdtse narodnom*, 3rd ed. Minsk: Belorusskaia sov. Entsiklopediia, 1984.
- V. M. Ivanov, *Marshal M.N. Tukhachevskii*, Moscow: Voenizdat, 1990.
- V. N. Khaustov et al. eds., *Lubianka: Stalin i Glavnoe upravlenie gosbezopasnosti NKVD, 1937-1938*, Moscow: 'Demokratiia', 2004.
- V. P. Goremykin eds., *Velikaia Otechestvennaia Komdivy: Voenni biograficheskii slovar'*, 3 vols. Moscow: Kuchkovo Pole, 2011-2014.
- V. Rapoport and Y. Alexeev, *High Treason: Essays on the History of the Red Army 1918-1938*,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85.
- V. S. Antonov and E. G. Plimak, "Taina zagovora Tukhachevskogo," *Otechestvennaia istoriia*, no.4, 1998.
- V. Suvorov, *Ochishchenie: Zachem Stalin obezglavil svoiu armiiu?* Moscow: AST, 1998.
- V. V. Karpov, *Marshal Zhukov: Ego soratniki i protivniki v dni voiny i mira*, Moscow: Voennizdat, 1992.
- V. V. Osipov, "Obshchevoiskovye manevry kak vysshaia forma

obuchenii voisk,” *Voennaia mysl'*, no.7, 1988.

Vladimir S. Mil'bach, “Repression in the 57th Special Corps (Mongolian People's Republic),” *Journal of Slavic Military Studies*, no.1, 2002.

W. G. Krivitsky, *In Stalin's Secret Service*,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39.

<Abstract>

The Cause of the Purge against the Red Army in the 1930s  
— Based on the Career Analysis of the Red Cavalry Commanders —

Lee, Jeong-ha\*

This article analyzes the relations between the Red Cavalry commanders and the Purge against the Red Army (or “The Tukhachevskii Affair”) in the late 1930s. According to previous historiography on the Purge, M. N. Tukhachevskii and other purged commanders were the champions of progress in the face of the obscurantism of the Red Cavalry. This is part of the underlying assumptions and myths that have dominated the literature on the mechanization program and the Red Cavalry before World War II.

There emerge three questions on the relations between the Red Cavalry commanders and the Purge. Firstly, was previous historiography on the Purge correct in believing that the Red Cavalry commanders were safe from the Purge? Secondly, even if not all the Red Cavalry commanders were exempt from the Purge, were the cavalry commanders who had some personal connection with Stalin and Voroshilov, specifically the former members in the 1st Cavalry Army (*Pervaiia konnaia armiia*), actually safe from the Purge? Third and last, were the victims purged for political reasons only?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article attempts to explain the Purge, focusing on the commanders’ social background and career analysis.

---

\* Researcher, The Western History Society of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Actually, the cause of the Purge was not the unfortunate end of the mechanization debate or the conflict between cavalry commanders and tank commanders. While the Purge certainly caused heavy attrition, it can hardly be regarded as the destruction of the 'pro-mechanizers' around Tukhachevskii by the cavalry commanders. That is, the tank enthusiasts around Tukhachevskii cannot be seen as a special target of the Purge; the cavalry commanders also suffered in the Purge, contrary to previous historiography.

Key Words: Red Army, Red Cavalry commanders, The Purge, Collective biography, The 1st Cavalry Army